

개인의 생사복부터 전세계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이 지구촌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크리스천들을 사용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20a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6월 11일 (토) 제 1587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 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개막...6-10일 아주사퍼시픽 대학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에게 '선교올림픽'으로 기억되고 있는 한인세계선교대회(KWMC)가 아주사퍼시픽 대학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6일 오후 성대히 막을 올렸다.

제 8차 선교대회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만국기 입장과 대회장단, 선교사들이 입장 후 KWMC 고석희 목사(사무총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돼 이상진 장로(공동대회장)의 기도가 있었다.

이어 1회 때부터 참석해 이 대회를 함께 이끌어온 차현희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뜨겁고 거룩한 불길에 계속 타오르길 바란다. 선교사와 선교지, 가정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흥식 선교사(위원장 현역선교사/태국)는 “한국 선교사 2만 7천 여명이 웬 말인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큰 상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말하며 지난 45년간의 사역의 발자취를 한국가요에 맞춰 불러 참석자들에게 놀라움과 기쁨을 선사하고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한정국 목사(KWMA 사무총장)는 “선교사들은 한인교회의 자랑”이라고 치하하며 환영했다. 이어 남가주 성가단의 특별찬양과 지난 7차의 선교대회 발자취를 영상에 담아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어 단애선 존 R 왈리스 박사(아주사퍼시픽 대학 총장)는 ‘A City on a Hill’(언덕 위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아주사 지역의 부흥과 학교를 통한 인재양성,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축사는 마크레버튼 박사(폴리신학대학교 총장)와 정운찬 박사(전 국무총리)가 전했으며 토마스왕 박사(명예 대회장)



제 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는 영상으로 축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슬기 씨의 찬양연주와 고석희 목사가 선교사들에게 바치는 헌시, “길을 묻는 사람”을 낭독한 후 25년 이상 현역으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찬화패를 증정했다.

한편 이날 성찬식은 박희민 목사(명예대회장)의 집례로 진행됐으며 최연장 은퇴 선교사인 최찬영 선교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첫날인 6일 밤 8시 30분 박형은 목사(동양선교교회)의 사회로 열린 첫째 날 저녁 선교대회는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찬양팀의 찬양과 강대홍 선교사(태국)의 기도로 시작돼 김중진 선교사(태국), 정훈재 선교사(미안마), 박수영 선교사(태국)의 선교보고가 있었다.

김중진 선교사는 “빛진 자의 심정으로 은혜로 사역하며 살아가고 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교는 중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안마 사역 14년차 정훈재 선교사는 “장성하기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민국 12.12사태 시 당시 헌병이던 동생이 사살되는 어려움을 겪게 됐고 장례

식을 마친 뒤 교회로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교회에서 ‘데모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교를 듣고 ‘교회도 전두환 편이구나’ 생각하고 등을 돌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부르기 위해 또 다른 일을 시작하셨다. 두 살짜리 아들이 백혈병에 걸린 것. 나는 또 다시 교회로 달려가 철야, 금식을 반복했다. 교회는 온통 우리 가정을 위해 뜨겁게 기도를 이어갔지만 5년간의 투병 끝에 결국 아들은 하나님 곁으로 갔고 담임목사의 권유로 선교사의 길로 들어섰다”며 주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고백했다.

이어 단애선 오른 박수영 선교사(태국)의 간증은 모든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3살 되던 해 뇌염을 앓으며 고열을 이기지 못해 뇌성마비가 되어야 했던 그를 그의 모친은 아이를 등에 업고 등학교를 하며 일 반 학교를 고집했다. 몸은 마비가 돼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의 지적 능력은 손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의자에 몸을 묶고 공부를 했지만 언제나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 친구들에게 ‘재수 없는 병신’으로 왕따를 당해야 했다. 그러나 손과 발이 돼준 친구가 있었고 그를 통해 복음을 들었다.

(3면으로 계속)

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 성황

신임 대표회장 최근봉 선교사, 사무총장 김정환 선교사



제 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에서 기도를 올리는 선교사들

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KWMC 2016)가 대회에 앞서 3일부터 3박4일간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총장 존월레스 박사) 이스트캠퍼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대회 마지막 날 열린 정기총회는 송충석 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사역보고, 감사보고, 재정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임원선거는 공천위원이 공천한 내용이 KWMC 회칙과 별도로 정한 내규에 의해 진행된 것에 관해 설전이 이어져 한때 회의가 답보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진통 끝에 회장직권으로 선거가 진행돼 대표회장엔 최근봉 선교사(키르키즈 공화국/GMS)가 선출됐으며 신임 공동회장엔 김영성(오르단/대신), 박영기(일본/고신KPM), 오세관(태국/감리교) 사무총장에 김정환 선교사가 당선됐다.

KWMC 대회개막 전인 3일부터 6일까지 열린 KWMC 대회는 세 번의 부흥사경회와 아침예배, 그리고 10번의 세미나와 분과별 소그룹발제 및 토의발표로 진행됐다.

첫날 디너만찬에 이어 열린 교제의 시간은 안성원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 한

두수 선교사가 기도했으며, 송충석 대표회장이 환영사, 고석희 KWMC 사무총장과 한기홍 KWMC 대회장, 그리고 데이빗 빅스비 APU 수석부총장이 축사를, 그리고 박성민 APU 부총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열린 부흥사경회는 박명하 선교사 인도로 시작, 이금주 선교사가 기도를, 은혜한교회 장로성가단의 특송,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의 설교, 그리고 신흥식 선교사가 축도했다.

이어 최찬영 선교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김중진 선교사의 인도로 기도회가 진행됐다.

둘째 날 아침예배는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가, 셋째 날 아침예배는 김동엽 목사(목민교회)가, 그리고 넷째 날 아침예배는 김문훈 목사(포도원교회)가 각각 설교했다. 또한 둘째 날 저녁에 열린 부흥사경회는 한도수 선교사 인도로, 송상천 선교사 기도, 최복이 분월드미션 이사장 간증, OCKM 합창단이 특송했으며, 유기성 목사가 설교를, 신종혁 선교사가 축도했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조은출판사

20년 경력의 “월간광야” 노하우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789-1301, (626)522-9909
대표 발행인: myong@joenchulpan.com

2면: 종교의 미래, 여전히 청신호... 가난한 자, 하나님께 오고 있다!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8면: 청교도 신앙 이윤석 목사

16면: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016 Fall / 2017 Spring

여수론 기독교학교 학생모집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여 나와나를 찾는 하나님의 품”

학교안내

여수론 기독교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고등학교입니다. 믿음과 지식, 앎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들을 양육하여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이 여수론 기독교학교의 목적입니다. 여수론 기독교학교는 경험 중심의 통합적 교육방식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을 학생들이 개발할 수 있는 교육 방침과 교과 과정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배운 말씀과 지식을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지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안에서 경험한 말씀과 지식 가운데, 성경적 세계관을 세워가며,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6:33 MORNINGS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양성” - 마태복음 6:33

3P - 성경적 관점 (Biblical Perspective)
- 하나님 나라의 목적 (Kingdom Perspective)
- 하나님 중심의 사람 (God-centered People)

3S - 순전한 복음 (Sound Doctrine)
- 순전한 삶 (Sound Life)
- 순전한 지식 (Sound Teaching)

세상의 영광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이 여수론 기독교학교의 목적입니다.

오직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삶의 목적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수론 기독교학교의 교육의 근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경험함으로써 그 나라의 주인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세워갑니다.

순전한 복음은 건전한 성경관과 신학에 바탕을 둔 신앙 교육을 의미합니다. 순전한 삶은 앎과 삶이 하나가 되는 인성 및 생활 교육을 의미합니다. 순전한 지식은 성경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통합적이고 실제적인 지식 교육을 의미합니다.

JESHURUN CHRISTIAN SCHOOL
www.jeshurchristianschool.org

info@jeshurchristianschool.org 315-474-8346 1800 E Genesee St, Syracuse, NY 13210

교장 지용주 박사

현 시라큐스 한인교회(PCUSA) 담임목사
유타대학교 기계공학 박사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KWMC (한인세계선교협회) 부의장
선교사자녀 학교 설립협력기구 기구장
Advisor member of Northeastern Seminary's Advisory Council



시론

이정표 · “신은 죽지 않았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나는 기독교 신앙 배경이 전무한 가정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라는 데에 발을 디디고 들어섰을 때 교회는 “별세계” 그 자체였다. 사춘기 청소년으로서 내가 경험한 별세계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 그 순간부터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망한다며 협박하는 부모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게다가 그 당시 친구들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기에, 친구들 틈바구니에서 떨어져 사는 건 지옥이나 마찬가지였기에 부모가 절대로 기독교 신앙을 용납할 수 없다는 말보다는 친구들이 교회로 나오라는 말이 훨씬 달랐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나는 부모의 압박을 ‘곧건히’ 견딜 수 있었다. 이렇게 나의 신앙은 핍박 속에서 자랐기에 오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목사로서 정체성을 더 강하게 느끼며 그 마음이 나를 지켜주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들어 이 자유의 땅 미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은 핍박이란 환경을 불러온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저마다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고 있기에 기독교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살고 있다. 이런 현실이 된 데에는 상당 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주장하는 가치대로 살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이렇게 팍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핍박이 불가피하며 이렇게 핍박 받을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마5:10-12, 요 17:15,16).

이런 핍박이 보편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영화 두 편이 최근에 만들어졌다. “God’s Not Dead”(GND/신은 죽지 않았다)의 1, 2가 바로 그런 문제작이다. GND1은 무신론자였던 테네시의 안과 의사 밋 왕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다. 어떤 대학의 철학자 무신론 철학 교수 제프리 래디슨이 자신의 수업을 듣기 위한 조건으로 “신은 죽었다”라고 쓰고 서명하기를 강요하였다. 그러면서 협박도 잊지 않았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대학의 강의실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수의 요구대로 순순히 신이 죽었음을 쓰지만 조쉬 휘튼이라는 학생 하나가 “절대로 쓸 수 없다”고 버틴다. 이에 화가 난 교수가 신이 존재함을 증명하여 학생들과 자신의 마음을 바꿔보라는 과제를 주었고 조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감동 스토리이다. 이 영화는 신앙의 관점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과학과 이성이라는 두 가지의 도구로도 신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출발한 영화였고 감동적으로 결말을 이어갔다.

올해 부활절에 개봉된 GND2는 전편에 비해서 더 잘 만들었고 훨씬 흥미진진하다. 이야기는 간단하다. 그레이시라는 교사가 고교 교실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마하트마 간디의 사회를 위한 봉사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브록이라는 여학생이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과 일치하느냐를 물었고, 교사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절을 알려주면서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것을 다른 학생이 교사가 국가와 신앙의 원칙을 어겼다고 고발하여 민사소송이 되었다. 교사는 해직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무신론 부모들은 교실에서 설교가 뭇 말이냐며 반대 시위를 하는 가운데 법정에서 배심원들의 판결을 기다리며 시종 흥미진진하게 이어지다가 극적인 반전을 맞이한다. 이 영화를 감독한 기독교인 해럴드 크론크는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성경에서 주시는 힘이 그를 이끌었다고 간증하면서 “믿음에 대한 핍박 앞에서 진실한 신앙을 세상에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자 했다”고 영화의 제작 의도를 밝혔다.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였다. 보면서 모처럼 감동어린 눈물도 흘렸다. 지금도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3면으로 계속)

종교의 미래, 여전히 청신호... 가난한 자, 하나님께 오고 있다!

가디언, “진보적 개인주의 몰락 곳엔 반드시 종교 다시 번성” 보도

종교의 미래는 항상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주 관심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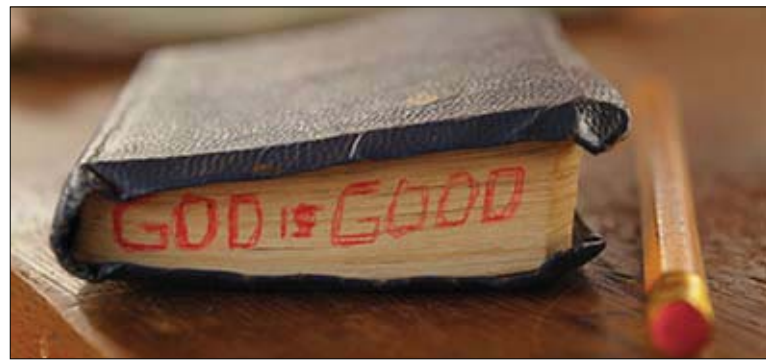
비관적인 입장에서, 종교의 미래는 어둡다고 보는 주장이 있다. 계몽주의,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현재의 진보주의의 성행으로, 기독교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본다. 바로 기독교가 활짝 개화된 유럽에서 기독교 탈출 그리고 무종교인의 급증이 그 반증이라는 것이다.

종교는 인간의 안전과 웰빙 수준이 높아지면 후퇴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최근 나온 여러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이지만 16세기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도 이를 지적한 바 있다. 제네바를 중심으로 개혁주의 신앙운동을 펼쳤던 그는 사람들이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수록 신앙에 덜 의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거지였던 유럽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고, 영국에서 기독교 인구를 무종교 인구가 앞질렀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죽음처럼 보여진다.

소위 “의심의 대가”로 불리우는 니체, 마르크스 그리고 프로이드는 모두, 종교는 시들게 되어 20세기에 들면 없어질 것으로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은 “세속화 바람”을 핏대를 들 정도로 강조하여 종교는 사라진다고 말했다. 학문적으로 계몽주의는 종교 즉 기독교를 정면으로 격침시켜 종교는 거의 죽어 버렸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종교가 만들어내는 열매들이 풍성해졌다. 1900년 즉 니체가 죽은 해, 아프리카에만 8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지금은 3억3천5백만 명이다. 그리고 성장율은 계속 탄

여기에 기독교의 보수성, 즉 동성결혼허용 논란, 낙태허용 논란, 이혼허용 논란, 안락사허용 논란 등이 젊은 세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미래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도는 줄어들 것이며, 얼마나 많은 기독교도가 남아있을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고 함부로 말한다. 그래서 종교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종교는 아니 하나님은 다시 사람들에게 찾아와신다. 바로 진보적 개인주의의 한계점에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안식처로서,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시기에, 지구촌은 점점 더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고, “가디언”은 반박한다(The World is getting more religious, because the poor go for God: Religion itself thrives in places where liberal individualism fails. That’s the real clash of civilisations).



[2015년 성탄절을 맞아 프랑스 카라리스 난민수용소에서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있다. 카라리스 난민수용소는 단지 IS의 박해를 떠나 머무는 난민들의 안식처 일뿐만 아니라, 교회와 모스크 사원의 영혼을 위한 각축장이 되고 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종교를 조롱했던 프랑스 세속주의자들에게, 이처럼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가련상은 다시금 종교적 가치의 부활을 말해주고 있다]

“기독교는 완전하게 사라지거나 죽을 수 없다... 무계추가 세계 남과 동으로 이동하고 있을 뿐”

질렸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Christians could be minority by 2018, census analysis reveals: Number of Christians in England and Wales falls by more than 4 million as population of Muslims and non-believers rises).

영국인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무신론이 다시 북고돼 성행한다는 결론은 아니다. 다만 서구인들의 성향 즉 조직이나 공동체와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현상을 말해준다. 그리고 종교는 형이상학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 즉 먼저 한 공동체로 소속돼 믿게 되는 것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왜 종교의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는 장소에 진보적 개인주의가 유난히 성행되는지를 설명해준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문명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쇼핑센터(지금은 온라인) vs.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L.A. and N.Y. offices and a subscription form.

Large advertisement for Midwest University, featuring the university logo, '2016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2016 Fall Semester Student Recruitment), and details about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s.

IS 테러 작전, 군사비용 만만치 않다!

뉴스위크, 보스턴대학 정치학과 연구 보도

미국인은 전쟁 중임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 대부분 미국이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하루 전투비용은 1160만 달러다. 지난 10년 사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 비용에 비하면 '끔값'이다. 그러나 1160만 달러는 빙산의 일각이지, '숨은 비

용'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을 미국은 감당하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보도한다(U.S. Operations Against ISIS Look Cheap, for Now: Bombing ISIS may be "cheap" now, but the war on terror is expanding, and costs are hardly all accounted for).

2014년 8월 이후, 미국은 IS와 싸우는 시리아와 이라크를 돕기 위해 특전대와 고문단을 파견하고 공습작전을 개시했다. 거기에 든 비용은 2001-2014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쓴 돈의 4%에 불과했다. 미국 국방부 예산과 지출만 계산할 때, 그런 작전의 하루 총 비용은 3억9백만 달러였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주둔 병력을 9,800명과 3,550명의 현역 사

병으로 줄였다. 그리고 시리아에 상당 규모의 병력을 배치해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특수부대원 300명만 파견해 현지 병력과 협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을 조사한 보스턴대학 정치학과 네타 크로퍼드 교수에 따르면 테러와의 전쟁은 다른 쪽에서 확대되고 있다. 미군은 어느 때보다 많은 나라에서 많은 무장단체와 싸움을 벌인다. 부시 행정부가 필리핀·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까지 극단주의 무장세력을 추격했듯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리비아·시리아·동아프리카로 전선을 확대해 엇갈린 결과를 얻고 있다. 크로퍼드 교수는 "전쟁 규모가 더 커지고 지리적으로 확산되며 관련자 숫자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방부의 초기 비용 추정액은 장차 IS를 격퇴하고 전쟁의 영향을 수습하는 데 드는 비용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비공측면에서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크로퍼드 교수는 말한다. 초기 비용을 추산할 때는 대체로 군사행동 후의 대외원조나 참전군인의 건강의료와 연금 같은 장기비용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그런 비용을 모두 더하면 4조4000억 달러를 넘어선다고 그녀는 말한다. IS 폭격에 지금은 돈이 적게 들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빠진 비용이 많다.

소망 칼럼

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꿈은 비전(vision)이고 희망은 비전이 현실화 될 것을 확신하는 바람이다. 꿈과 희망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곳에는 반드시 위대한 꿈이 있었다. 위대한 꿈과 희망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 바란다. 사람은 어떤 처지나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꿈과 희망은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다.

요셉은 어린 시절 자기의 어머니 라헬을 잃고 외로운 처지가 되어 가장 힘들고 고통을 당하던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다. 요셉이 꿈에 보니까 가족들이 추수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곡식단은 중앙에 우뚝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자신의 곡식단 주변에 둘러서서 그 단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다(창37:5-11). 그 꿈은 장차 요셉이 크게 성공하여 형제들 가운데 으뜸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계시였다. 이 같은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그대로 이루어졌다. 요셉은 꿈과 희망이 있었기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다. 오늘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 키에르 케골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산림왕 김슨의 이야기이다. 그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수성가해서 미국의 산림 왕이 되었다.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된 것이다. 하루는 그의 친구가 찾아왔다. 고아원에서 절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다. 빈털터리가 되어 낙심하고 찾아온 것이다. 그는 친구인 김슨에게 말했다. "나도 자녀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데 비결이 있으면 내게 좀 가르쳐 주게 나!" 김슨은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하여 주었다. "여보게, 내가 일러주는 대로 앞으로 몇 년간만 꼭 참고 해보게. 그러면 자네는 틀림없이 나처럼 부자가 될 걸세. 만일 자네가 그렇게 했는데도 부자가 되지 않으면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라도 자네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네. 약속하겠나?" 그들은 서로 굳게 약속을 했다.

그리고 나서 김슨은 친구에게 다음 세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하나님을 잘 섬기게. 앞으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얼마를 주시든지 간에 심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게. 둘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하게. 셋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언제나 미소만 얼굴로 친절하게 대하게. 그러면 자네는 틀림없이 부자가 될 걸세. 만일 그렇게 했는데도 부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네."

김슨의 친구는 단단히 약속을 하고는 밖으로 나오다가 어느 공장에서 직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그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가 직원 모집에 응모했다. 자기에게 월급을 얼마를 주든지 근무 조건이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았다. 그곳에서 일자리를 얻은 그는 무슨 일든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다. 그리고 누구를 보든지 간에 항상 미소 띤 얼굴로 친절하게 대했다. 또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기 수입에 대한 심의 일을 정직하게 밝혔다. 그 뒤 일 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 그 공장에서 이웃 도시에 대리점을 차리게 되었다. 사장이 일 년 동안 그를 지켜본 결과 그만큼 성실한 사람이 없다고 여겨져 그를 발탁해서 대리점 사장 자리에 앉혔다. 그래서 그는 몇 년이 채 가기도 전에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기차 여행을 하다가 보면 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다. 그 때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다고 해서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미친 듯이 발광하고 읽던 책을 집어던지고 기차표를 찢는 등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다. 조금만 참으면 터널은 지나가고 밝은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nammicj@hanmail.net

IS와의 전쟁 하루 전투비 1160만 달러...숨은 비용 많아

지난 10년 새 아프간-이라크 전쟁 비에 '끔값'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면에서 계속)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셨다. 척추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휠체어에서 지팡이로, 뒤종거리긴 했지만 지팡이를 던져 버릴 수 있었다. 말이 어눌했지만 남이 들을 수 있도록 회복됐고 비뚤어진 입이 제자리를 찾았다. 이런 체험을 겪으며 경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100통의 이력서를 교회마다 넣었지만 뽑아주는 교회가 없었다. 결국 신학을 포기

하고 컴퓨터를 전공했다. 그러다 어느 날 단기선교지를 가게 됐고 그곳에서 컴퓨터 행정 선교사로 다시 콜링을 받고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됐다. 결혼도 했다. 기독교방송 인터뷰를 통해 공개 청혼을 했고 결혼에 골인했다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진솔하게 풀어내 간증이 끝났음에도 참석자들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이어 '선교사 찬양대'와 '남가주 사랑의교회 찬양대'의 특별찬양이 있는 후 로렌 커닝햄 목사(YWAM

총재)가 말씀을 전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함2:14, 계14:6)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로렌 목사는 "말씀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었다"고 전제하며, "열방이 말씀으로 담겨져야 한다. 전 세계 젊은이들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1971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정말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에서 9번째 부자나라가 됐다. 한국에 복음이 심어졌기 때문이다. 말씀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다.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부르고 있다. 열방을 향해 말씀을 전해야 한다. 온 세계에 성령이 배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선교를 위해 이병구

선교사(코디네이터)가 합심기도를 인도했으며 신총재 선교사의 축도로 첫날 모든 행사를 마무리 했다.

제 8차 선교대회 낮 시간에는 전 세계 권역별 선교포럼과 선교사와의 만남의 광장이 이어졌으며 둘째 날 저녁집회 말씀은 서삼정 목사(공동대회장, 아틀란타 제임장로교회)가 '능력의 불', 셋째 날은 김남수 목사(공동대회장, 프라미스교회)가 '나를 믿는 자는', 넷째 날은 한기홍 목사(공동대회장, 은혜한인교회)가 맡았으며 마지막 날인 10일 폐회예배는 선언문 채택과 함께 선교의 열정을 품은 이들을 위한 파송예배로 드린 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성자 기자)

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 성황

(1면에서 계속)

셋째날 부흥회는 김종국 선교사 인도로, 김승진 선교사 기도, 목사장로부부찬양단이 특송, 오정호 목사(대전새로남교회)가 설교, 최용순 선교사가 축도했다.

또한 10번의 세미나로는 △선교와 큐티(김양재 목사) △선교와 리

터십(진재혁 목사) △선교와 성령(유기성 목사) △선교적 교회와 선교현장(최형근 교수) △타자성의 선교철학(고석희 목사) △세계선교동향(스캇선키스트 박사) △선교와 제자양육(오정호 목사), △일어나 걸으라(앤드류김 CA대표) △선교사의 건강관리(강윤식 박사)가 실

시됐다(광호안은 강사).

분과별 소그룹 발제시간에는 △교회 개척 △신학교 사역 △교육 선교 △회교권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 △전문인 선교 △헌두권 선교 △창의적 접근지역 △여성선교 △차세대선교 동원 △선교연구와 개발 △체육 선교 △불교권 선교 △중남미권 선교 △유럽지역 선교 △난민 사역 △멤버케어 및 위기관리 △비즈니스 △지원단체 등 19개의 주제

로 진행됐다.

5일 오전에는 남가주한인교회들을 방문해 선교부흥회를 갖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 날인 6일 중식 후에 열린 정기총회와 폐회예배(설교: 송송석 선교사)를 끝으로 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를 마치고 KWMC대회장으로 향했다.

(박준호 기자)

(2면에서 계속)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에서 겪는 핍박이라는 것은 중동지역이나 아프리카와 같은 다른 나라들에서 겪는 어려움들에 비하면 새발의 피일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도 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질 것이다.

알곡들은 이런 핍박으로 더 단단해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모두 마음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자승자박은 아닌지, 우리가 기독교의 가치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든 핍박의 환경도 감당해 낼 정도로 무장되어 있는지, 또한 그럴 만큼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 확신하는지.

danielkmin@yahoo.com

창립 28주년 및 제6대

담임목사 취임 감사 예배

일시: 2016년 6월 18일 (토) 오전 11시



김광삼 목사

예배안내

주일: 오전 10시

금요찬양예배: 저녁 7:45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저희 동문교회는 창립 28주년 감사예배 및 김광삼 목사님을 담임으로 모시는 취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석해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동문교회

East Gate Korean Presbyterian Church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전화: (213) 483-6625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복이 되는 유산

옛날 경기고등학교를 몇 달 다니고 곧바로 서울 대학교에 들어간 수재학생이 있었다. 학창시절 그는 졸업 1등만 했다. 마침내 유학생활을 마치고 그는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가 되어 한국에 돌아왔고 문민정부시절 과학기술처 장관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의 콩팥이 상해서 그 아들이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아버지의 수재적 능력도, 천재 과학자라는 이름도 아들의 병 앞엔 소용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일어선다. 그리고는 병원으로 달려가 자신의 콩팥을 잘라 아들에게 이식시켜주고 그리고 아들을 살려낸다. 명지대 총장이었던 정근모 박사의 얘기이다. 자신의 콩팥을 물려주고서라도 아들을 살려내는 아버지-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자식이 잘되는 길이 있다면, 내 자식이 잘되는 길이 있다면 자녀에게 복이 된다면 자신의 콩팥이라도 자를 수 있는 사람- 그

가 바로 아버지요 어머니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 젊은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유산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 한국 재벌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줄도 모르고 세간에 시끄럽도록 왜 형제간에 싸움을 하는지 아는가? 그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재산이 복인 줄로만 알고 물질적 물려주었기 때문이다. 많은 돈, 많은 재산이 복이 되는 유산은 아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이 땅에 남기겠는가? 돈을 남기겠는가? 명예와 권세를 남기겠는가? 아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돈을 불똥이라고 외쳐보라! 돈을 불똥 사람이 있겠는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권세나 명예를 불똥이라고 외쳐보라. 권세나 명예를 불똥 사람은 없다. 누구나 인생의 종착점에 서고 보면 최고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이 다. 천국이다. 먼 훗날 여러분의 자식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불똥고 살았노라고 기억하겠는가? 우리 부모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

기던 분이라고 기억하겠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려는가?

프린스턴대학교 철학교 교수인 블랙우드는 그리스도인이 후세에 남겨야 할 세 가지 유산을 이렇게 말했다.

첫 번째는 기쁜 기억의 유산이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런 기억이 죄악을 견디고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록펠러는 신앙인이 복 받는 기쁜 기억 세 가지를 말한다. 예배드릴 때 앞자리에 앉는 기쁨,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헌금의 기쁨, 그리고 자기 담임 목사님을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섬기는 기쁨이었다. 그것이 록펠러에게 그 어머니가 물려준 유산, 기쁜 기억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의 유산이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인 토머스 스탠리 교수가 최근 미국을 움직이는 재벌들을 연구한 "부의 세습"이란 연구를 발표했다.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아 부자가 된 사람은 겨우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중산층 또는 노동자 출신으로 부

모의 물질 유산 대신 "좋은 습관"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성실, 정직, 신앙이라는 정신적 유산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높은 생의 목표라는 유산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고귀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유산상속이다. 자식은 그 부모가 만들어 물려준 가치관으로 웃고 삽니다. 살아가기 때문이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인생을 시작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부모의 축복과 유산 없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아무런 유산 없이 맨 바닥에서 그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모의 축복과 유산 말하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자식들이 제로베이스에서 인생을 시작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내가 물려주는 유산 거기에서 첫 발을 내디디고 출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나를 디디고 거기서 또 더 높은 산에 오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사실 우리들도 선진들이 남긴 온갖 유산을 디디고 오늘을 향해 달려 온 것이다, 신앙의 선배는

후배를 위해서 할아버지 세대는 아버지 세대를 위해, 아버지 세대는 아들 세대를 위해, 아들 세대는 손자 세대를 위해 축복의 기쁨부음을 임파테이션해야 한다.

여러분! 축복하는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축복의 권세가 있다. 여러분이 부모이면 당연히 여러분 안에 자녀를 축복할 권세, 축복의 능력이 있다.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교회에서는 주님께 충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여러분 자녀에게 복이 되는 유산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기를 바란다. 돈 몇 푼이나 축복타령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복이 되는 유산이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진정 복이 되는 유산을 남기고 교회에서는 겸손과 충성의 전통을 후배 교우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가기를 바란다.

revpetergang@hotmail.com

푸 / 른 / 초 / 장

조응철 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 교회)



여러분의 슬픔은 예수 안에 있는 슬픔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참된 즐거움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나 질병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로서 극복하고 해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고난을 당할 때 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그의 품에 품으시고 고난을 해결해 주십니다. 고난당하였던 육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어 모든

신자는 기도가 생활이라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즐거울 때 찬송하십시오!

2. 14절과 15절은 병든 사람은 그 믿음으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교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찌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흑시 죄를

다.

어떤 때는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막 7:33-35) 귀먹고 병어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어떤 때는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막8:23)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땅에 침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라"(요 9:6)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요 9:7)고 하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막6:13).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하였습니다(눅10:34). 어떤 사이버교과들과 광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이 병 치료에 있어서 의사의 도움을 거절하며 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술이나 의약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2) 육신의 병을 고치는데 있어서 영적인 유익이 부수적으로 따른다고 말씀하십시오.

"흑시 죄를 범하였을 찌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15절 하반). "죄를 고백하십시오!"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잘못 이해하여 목사님이 성도를 괴롭히는 일로 생각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병이 자기의 숨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면" 그 생각은 매우 아름다운 믿음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도 받고, 죄 사함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장로들"은 오늘날의 목사들을 가르칩니다. 성도들이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에 자신의 고민과 번민과 괴로움과 죄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6면으로 계속)

고난당하는 자와 병든 자의 할 일

(야고보서 5:13-18)

1. 13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지니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험에 빠지는

나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신자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어린 아이가 고난을 당하며 어머니의 가슴에 안기듯이 신자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모든 문제의 해결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를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도 그가 주 안에서 감사하며 만족했듯이 고난당하는 성도는 주안에서만 위로와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살전5:1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살전5:18).

범하였을찌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1) 우리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은 초자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못하는 일이 없는 절대능력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

그런데 본문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 병 치료를 위하여 사람의 방법을 다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먼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기름을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2016년 5월 졸업식

- 1. 졸업식(Commencement Ceremony)**
 일시: 2016년 5월 7일(토) 오전 9시
 장소: Manahan Orthopaedic Capital Center (그레이스 대학 캠퍼스 내)
- 2. 졸업 논문 발표**
 일시: 2016년 5월 5일(목) 오전 9시
 장소: William Male Center(신학교 건물)
- 3. 총장주관 만찬(President's Luncheon)**
 일시: 2016년 5월 6일(금) 12:00-1:30 pm (졸업식 리허설 후)
 장소: Westminster Hall(웨스트 민스터 홀)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LGBT 운동가인 성전환자를 백악관 신앙자문위원회에 임명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오바마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되고 있는 미전역 공립 학교 성전환자 법령(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남학생/여학생이 동시에 혼용하는 법안)을 내리기 바로 전날에 미국 역사상 또 한번 엄청난 정책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함께 종교적 파트너십을 찾고 조인할 수 있는 신앙자문 위원회(President's Advisory Council on Faith-Based and Neighborhood Partnerships) 자리에 트랜스젠더인 "성전환자 운동가"를 임명한 것입니다!

2015년에는 백악관 인사팀(H.R.)의 리더십 자리에 미국 역사상 최초의 "성전환자 운동가"를 임명했다. 이제 "신앙자문위원회"에 또 다른 "성전환자 운동가"를 임명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임명된 주인공은 82세 Barbara Satin으로서, 본래이름은 David이고, 남성으로 거의 60세까지 살다가 60세에 여자로서 성전환을 하고 여성이름인 Barbara라는 이름으로 바꾼 남성입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LGBT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교파 중 하나인 United Church of Christ 교회 교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교단의 집행위원회에서 섬기며 LGBT 운동가로 종교와 노화에 성전환 및 동성애 성향을 지지하기 위해 집중

이 제시한 모든 성별들은 뉴욕시 ("동성애)차별 금지법안"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데, 뉴욕시도 캘리포니아 주처럼 2012년에 이미 정당에 "동성애 지지"를 법적으로 선포한 민주당 자유정치인들이 정치적 주류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강력히 시행해도 교회들과 성도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한 뉴욕은 이렇게 소동과 고고라보다 더 심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뉴욕의 이런 정책은 오바마케어처럼 그들의 정책을 거부하는 시민들에게는 벌금을 물게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개인이 선택한 성별(gender)을 존중하지 않거나 수용하지 않는 기업은 시의 인권위

별 호모 (genderqueer)"는 스스로를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성별을 초월한 여러 성별을 조합한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성별 벤더(gender bender)"의 의미는 성별을 변경, 믹스, 또는 남성과 여성스러움의 요소를 함께 표현하여 사회의 성별 규칙을 "결합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뉴욕시의 성적 정체성 전체 목록(31개 이상)은 시의 인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문서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nyc.gov/.../downloads/pdf/pu.../GenderID_Card2015.pdf

그러나 희망의 소식도 있습니

들과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지난 5월 초에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교들은 정부로부터 소송을 받을 수 있고 학교에 보내지는 정부 후원금이 삭제될 수 있다"라는 협박적인 공문을 미전역 모든 학교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지시문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미연방 법무부와 교육부의 서명들이 함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터무니 없는 오바마 정부의 사악한 공문에 맞서서 텍사스, 앨라배마, 위스콘신, 웨스트버지니아, 테네시, 애리조나 교육부, 메인 주지사,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유타, 조지아 주가 지난 5월 18일에 오바마 정부를 고소했습니다.

텍사스 법무장인 Ken Paxton이 11개 주의 오바마 정부를 향한 소송을 발표하며 말하기를 "지금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정부 민주당에서 내린 법령은 미국의 민주주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 집행 명령으로 수행하는 현 정부의 또 하나의 폭주와 같은 시도며 시민들과 우리 자녀들을 향한 정치적 폭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텍사스 부지사는 "연방 교육 자금 100억 달러를 포기하더라도 가정과 자녀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문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지난 7년간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의 변질된 정치적 정책들로 인해 우



Barbara Satin

뉴욕시 주민, 31개 성별 중 선택...11개주가 오바마-민주당 고소

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앞으로 백악관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표하여 대통령에게 신앙에 대한 정책과 관행을 권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여 힘을 내어 영적전쟁에 돌진해주세요!

31개의 성별(gender)에서 선택할 수 있는 뉴욕시 주민?

앞으로 뉴욕시 주민은 최소 31가지의 성별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시에 의하면, 31가지의 성별 목록이 끝나지 않고 앞으로 더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원회(NY City Human Rights)의 규칙에 따라 10만 달러 벌금까지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실수로 잘못된 대명사를 사용할 때에는 "우선"은 벌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가장 민주주의였던 미국에서 이렇게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정치적 폭력"들이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정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매우 시급한 때라는 것입니다!

뉴욕 시는 벌금은 물게 하면서 "성별의 정의"를 제공하지는 않고, 대신 University of Wisconsin과 UC Berkeley가 제공하는 성별의 의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성

다! 미국 11개의 주(States)에 있는 보수 공화당 주지사들과 주정부 판사들이 사악한 법령을 강요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그 정부인 민주당을 고소했습니다. 11개 주의 공화당 보수 정치인들은 더 이상 "오바마 정부의 정치적 폭력"을 볼 수 없다고 말하며, "(미국에서) 법을 만드는 권리는 국회에만 있지 대통령은 왕이 아니므로 오바마 대통령과 그 정부(민주당)가 이런 비민주주의적이고 차세대에 위협한 법령들을 내리는 것은 미국 헌법에도 어긋나고 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2016년 1월에 대통령이 직접 내린 법령을 보수지역

리 자녀들과 차세대의 안전이 그들의 안전에 없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법안들을 통해 드러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오바마 대통령과 그 정부인 민주당은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마치 사악한 영의 유혹에 홀린 듯이, 그들의 영적 눈들은 그동안 돈과 정치적 권력을 하나보다 우선 순위하여서 타협하며 정치적으로 "정당화 시킨 수많은 죄들"로 인해 이제는 그들의 양심마저 너무 어두워지고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아직 깨어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간절히 미국을 위해, 지금의 오바마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자녀를 둔 아이 엄마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아이들과 가정예배도 드리고 아이들과 대화도 나누고 있지만 뭔가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의 부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엄마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요?
-텍사스에서 Mrs Lee

A: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축복(Blessing)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시127:3). 둘째는 책임(Responsibility)입니다. 자녀는 버려두면 안됩니다. 버려두면 집의 백야드가 온갖 잡초밭이 되듯이 온갖 것이 끼는 잡초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생기는 모든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와 가정예배도 드리지만 자녀들이 뭔가 사랑의 부족을 느낀다면 다음의 이야기와 방법을 활용하여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의 한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라스무스"라는 아주 희귀하고 치명적인 질병이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발병했습니다. 고아원은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위생

하이테크 시대는 하나님의 하이터치가 필요

시설도 양호했는데 아이들이 하나 둘씩 빠른 속도로 건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주어도 놀지 않았고 먹은 것을 주어도 잘 먹지 않았습니. 아이들은 자꾸 아위어갔고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급기야는 죽는 아이들까지 생겼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기관에 속한 의사들이 와서 대체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결국은 아이들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의 스킨십이었습니다. 부모가 없어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매 시간마다 10분씩 아이들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입맞춤해주고 대화하면서 사랑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충분히 접촉해주었을 때 아이들은 얼마 있지 않아 회복되었습니다. 이 마라스무스라는 병은 피부 접촉이 결핍되어 생기는 병인데 사람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만져주면 낫는 병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요? 자녀는 부모가 스킨십으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순회하면서 의사나 간호원이 안부를 묻고 환자의 이마를 만지거나 손을 만지는 피부 접촉이 많은 환자는 그렇지 못한 환자보다 병이 더 빨리 낫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생기와 활력을 얻습니다.

오늘날 컴퓨터, 인터넷 등 최첨단 정보기술 문명이 발달한 하이테크(High-Tec)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많은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지만 영혼은 반대로 더욱 심히 외롭고 고독합니다. 이 외롭고 고독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만져주시는 하이 터치(High Touch)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복음장로교회 담임 목사 청빙

82년 8월 설립 이래 34년간 목회를 하신 김상덕 담임 목사의 은퇴로 본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자 격

- 본 교단 KAPC(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가 인정하는 정규신학 대학원 이상 졸업
- 이민 목회 담임 경력 5년 이상
- 40세- 55세 연령
- 한국어, 영어 사용
- 미국 체류 신분에 적합

제출 서류

- 이력서(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목사 안수 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 자기 소개(성장 배경, 소명, 목회 경험, 가족 소개, 사모 신앙백서 포함)
- 목회 계획서
- 최근 6개월 내 설교 동영상 2편(CD.또는 USB). 혹은 동영상 주소.
- 담임목회를 하는 목사 추천서 2부

제출 마감: 2016년 6월 30일
제출 방법: 우편 발송
제출 주소: Elder. Chris K. Choi 2651 W. Pendalton Ln. La Habra, CA 90631

기타:
- 봉투 겉면에 "담임목사 청빙 서류" 기재
- 이력서 뒷부분에 연락처 기재
- 제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 교회 위치는 Orange County에 있는 Fullerton City 인근 La Habra City에 있습니다.
문의: 청빙위원회
E-mail: chriskchoi@hanmail.net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복음장로교회 청빙위원회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네팔의 캄 마가르(KHAM MAGAR)



(Magar)족속은 네팔에서 가장 오래된 부족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들의 기원은 불분명하며, 언어와 춤이 티베트 문화와 비슷하기 때문에 티베트 후손이라고 믿고 있다.

네팔은 인도와 중국 사이 히말라야 산맥의 남부 지방을 따라 위치하고 있다. 마가르(Kham Magar)는 다른 마가르 종족들보다 먼 서쪽에 살고 있고 그들의 기원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사냥을 나왔다가 길에 잃어버린 네 명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느 특별한 지역에

캄 마가르(Kham Magar)는 다른 마가르 종족들보다 먼 서쪽에 살고 있고 그들의 기원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사냥을 나왔다가 길에 잃어버린 네 명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느 특별한 지역에

삶의 모습

많은 마가르 사람들이 기능공들인데 땅을 소유한 몇몇은 농부가 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은 광부로 대장장이로 바꾸니 짜기로 일한다. 그들은 단순하며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고 자기 의존적이며 자기만족적이다. 또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매우 낙천적인 사람들로서 다양한 춤을 출 뿐 아니라 자주 부족경기를 한다.

캄 마가르의 주거지는 전형적으로 지붕이 슬레이트나 이엉으로 된 이층 벽돌집이며 앞 현관은 종종 크고 넓게 되어있다. 또한 독특

한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 대부분 허리에 두르는 옷과 bhotos 또는 셔츠와 코트를 입는다. 여자들은 dhotis라 불리는 허리에 두르는 옷을 입는다. 그들은 또한 fulis(꽃 같은 귀장식)를 귀 중앙에 하고 리구슬과 인도의 은동전으로 된 목걸이를 한다. 몇몇 서양 스타일의 옷차림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다.

결혼은 독특한 형태로 준비되는 데 신랑의 처남이 신부 가족에게 가서 신부 값으로 돈과 알코올을 줘야 한다. 만약 제안이 수락되면 좀 더 지불하게 된다. 외가 쪽 사촌들에게 결혼은 가장 일반적인 준비이다.

마가의 친척관계에서 가장 구별되는 요소는 어머니의 삼촌들과 조카들 간의 강한 유대관계다. 그

들은 서로 존경하며, 조카가 결혼을 준비할 때, 신부는 그의 삼촌의 딸들 중에서 선택된다.

“윤희” 의식은 마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별한 탄생 의식은 태어난 지 11일 후에 행해진다. 아기의 이름이 지어지고 그때 처음 목걸이를 한다. Jyestha Poornima라고 알려진 축제는 5월이나 6월 보름달이 있는 시기에 열린다. 이 예식 동안 갖 추수한 곡식들을 신들에게 바친다.

신앙

캄 마가르족의 70%는 민족종교를 갖고 있는데, 상당한 불교도들이다. 오직 3%만 힌두교도다. 그러나 다른 마가 그룹처럼 힌두주의가 정령숭배적인 캄족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많은 사

람들이 지금은 힌두의 세 주요 신들이며 다른 신들의 주인인 우주의 창조자 Brahma, 세계의 보호자이고 보존자 Vishnu, 파괴자 Shiva에게 예배드린다.

필요로 하는 것들

신약성경이 캄 마가르 언어인 Takale Kham으로 번역되고 있다. 그러나 네팔 정부에서 강력하게 기독교를 반대하며, 크리스천들의 믿음 나누는 일에 대한 처벌을 심하게 하고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랜 동안 감옥에서 지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캄 마가르에 기독교인은 11명 정도로 추정한다. 종보기도가 캄족을 지배하는 요새를 부수고 예수님의 영광스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열쇠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막 오른 미 대선 본선 레이스 ‘진흙탕 전쟁’

‘미국 역사상 가장 기이한 선거’로 불리는 올해 미 대선 경선전이 오는 7일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5곳의 프라이머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경선 과정에서 듣기 민망할 정도로 거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고 흠집내기도 많았지만 어쩌면 이는 예고편에 불과할지 모른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본선 레이스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불쌍사나운 진흙탕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본선의 두 주인공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스스로 ‘갑추고 싶은 과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결국은 공약이나 능력을 경쟁하기보다 상대의 약점을 물어뜯는 최악의 네거티브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히려 많은 두 후보, 네거티브가 최대의 무기...두 후보에게 워낙 문제가 많다보니 양쪽 캠프는 이미 상대 후보를 겨냥한 ‘뒷조사’ 특별팀을 꾸려놓았다. 또 벌써부터 상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특히 트럼프는 ‘화이트워터 게이트’ 사건을 정면으로 거론하며 먼저 싸움을 걸었다. 이 사건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아칸소주 지사 시절 관여했던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일이다. 주지사 지위를 약용해 연방정부로부터 부당하게 자금 지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었다. 문제는 클린턴 부부가 백악관 법률고문으로 빈센트 포스터를 고용해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을 맡겼는데 그가 1993년 7월 워싱턴DC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당시에도 타살설이 돌았는데 트럼프가 또 다시 이 사건을 끄집어내 타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곧 클린턴 전 장관을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는 과거 빌 클린턴의 성추문과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피해 여성들과 접촉하며 정보를 모으고 있다.

클린턴은 국무장관 시절 보안이 떨어지는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과 관련된 ‘이메일 게이트’, 역시 장관 시절 리비아에서 미국 대사 등이 테러단체에 의해 숨진 사건인 ‘ Benghazi 게이트’ 등 온갖 ‘게이트’에 연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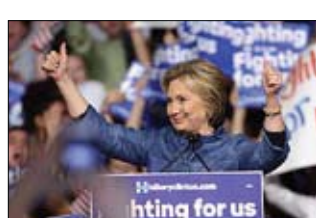
이에 맞서 클린턴은 트럼프의 ‘비즈니스 실패’ 사례를 꾸준히 모으고 있다. 이를 통해 트럼프의 유일한 장점인 ‘비즈니스 흥정의 달인’ 이미지를 깎아내리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가 비즈니스를 잘한 게 아니라 수시로 망했으며 특히 직원이나 여성들을 막대하는 등 ‘갑질’을 많이 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트럼프가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파고 있다. 또 부동산 강자를 위한 ‘트럼프 대학’을 설립해 비싼 강의료만 받고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으며 ‘사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 대선 역사에 ‘새로운 기록’ 속출한다...영국 BBC방송은 3일 이번 대선은 누가 되든 ‘70대 대통령’이 배출되게 된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오는 14일 70세 생일을 맞는다. 클린턴은 오는 10월 69세가 되며, 내년엔 70세가 된다.

클린턴이 당선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는 기록도 세운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64년 만에 처음으로 주지사나 연방의원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BBC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카지노를 운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미 역사상 최초의 것”이라고 꼬집었다.

힐러리, 미 첫 여성 대선후보...‘본선 신화’ 시동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AP통신은 6일(현지시간) 클린턴이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 요건(매직



넘버)인 과반(2383명)의 지지를 충족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미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 후보가 탄생했다. 오는 11월 8일 실시되는 미 대선은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결로 확정됐다.

퍼스트레이디, 상원의원, 국무장관을 거친 화려한 경력의 클린턴과 선출직 경험도 전혀 없는 부동산 개발업자 트럼프의 대결은 첫 남녀 대결이자 정치 인사 이터와 아웃사이더의 격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클린턴은 5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끝난 경선에서 승리를 보태 일반 대의원 1812명의 지지를 확보했다. 또 당내 슈퍼대의원 571명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 요건인 대의원 2383명의 지지를 확보했다. 민주당은 7일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멕시코, 몬태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등 6곳에서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실시한다. 클린턴 전 장관은 경선 직후 승리를 선언할 계획이다.

클린턴이 매직넘버를 모두 채웠다는 소식은 경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의원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곳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샌더스의 경선 포기 선언 여부는 캘리포니아 선거 결과에 달렸다.

클린턴은 6일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유세를 갖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순간을 맞이 직전”이라며 “그러나 내일 6곳의 선거를 치러야 하며,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샌페인을 미리 터뜨리지 않겠다는 신중한 태도였다.

클린턴은 6곳의 경선지 가운데 대의원 142명이 걸린 뉴저지에서는 압승이 예상된다. 문제는 캘리포니아다. 걸려 있는 대의원이 54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이곳에서 클린턴이 진다면 매직넘버를 채웠더라도 경선 승리 선언은 빛이 바랄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이 박빙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 10% 포인트 차로 클린턴이 샌더스를 앞선다는 LA타임스의 조사결과도 있지만, NBC방송·월스트리트저널 공동여론조사를 비롯해 차이가 2% 포인트 이내라는 결과도 많다.

샌더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승리할 경우 ‘경쟁 정당 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경선 결과에 얽매지 않는 슈퍼대의원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클린턴은 지난 2일부터 닷새째 캘리포니아에 머물며 패배를 막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클린턴은 유세장에서 샌더스 지지자를 의식해 샌더스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본선 상대인 트럼프를 주로 겨냥했다. 클린턴은 “미국인을 모욕하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진절머리가 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워싱턴DC 프라이머리를 마지막으로 5개월간의 대선 경선 일정을 끝낸다. 공화당은 7일 캘리포니아 등 5개 지역을 끝으로 지역별 경선을 마무리한다. 공식적인 후보 선출은 민주당의 경우 다음 달 25-28일, 공화당은 다음 달 18-21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이뤄진다.

인간게놈 합성 프로젝트 공식 추진

해외 과학자들이 인간의 유전체(게놈)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인간 게놈’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2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대학 랑곤 의과센터의 제프 비커 등을 주축으로 하는 과학자 25명은 최근 과학전문지 ‘사이언스’를 통해 10년 내에 세계적 안의 인간 유전체를 모두 합성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 ‘인간게놈프로젝트(HGP)-작성(write)’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달 하버드대에서 150여 명의 과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를 통해 나온 것이다. 당시 이 회의는 심각한 윤리 논쟁이 예상되는

내용을 다루면서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유전체는 인간 등 생명체의 번식과 보존에 필요한 유전정보로, 생명의 신비를 푸는 열쇠와 같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를 인공으로 합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프로젝트를 놓고 사람에 몸매 딱 맞는 인술린을 대량 생산하는 등 의학에 큰 진보를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적 관측도 있지만, 생물학적 부모 없이도 인간을 창조할 가능성을 여는 것이어서 생명과학계 안팎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과학자들은 일단 올해 공공과 민간 자금이 투입되는 1억 달러 규모의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 드는 총비용은 30억 달러 규모로 추산했다.

이들은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윤리적, 법적 틀 안에서 이번 작업을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인간을 합성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유전자가 세포 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자 중 한 명인 에든버러 대학의 합성생물학 학과장인 수전 로시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은 염색체 구조나 유전체 작동 방식 등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의 합성생물학센터의 톰 엘리스는 “나는 완전한 인간 유전체 합성이 좋은 것인지 아직 확실할 수 없다”며 “우리는 그것에서 많은 것을 배우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완성했을 때 그것의 명확한 사용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를 토론하고, 윤리적, 기술적 기준을 세우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IS 가입 서양 청년들 ‘집에 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가입했다가 IS의 실상에 환멸을 느끼고 탈출을 원하는 서양 청년이 최근 급증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보도했다.



외교관 등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들은 시리아와 인접한 터키 내 외교 공관을 찾아오거나, 자국 정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죄 고백을 영원히 발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하심을 얻는 길”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숨김 없이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병들어 고생하는 이웃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신자들은 고난당하는 자를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죄를 서로 용서하는 자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1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동방의 의인 욥은 자신이 까닭 없이 불행함을 만났고 불치의 병을 얻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자기의 의롭다고 생각했던 교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병 치료를 받았으며 복을 전보다 배나 받았습니대(욥40:1-9, 41:1-11, 42:5-6, 10). 영육 간에 복 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3. 16-18절은 기도의 본질과 기도의 능력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1) 첫째는 기도의 효험성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의 기도가 비오지 않게도, 오게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부에 몰래 메시지를 보내 IS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금까지 IS에 가입하고서 다시 자국으로 돌아간 서양 국적자들의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지만 수백 명이 유럽으로 복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가을 이런 청년들이 급증한 이래로 6개국 시민권자 150명이 자국으로 돌아갈 방도를 찾아 나서거나 실제로 스스로 귀국했다고 외교관들은 전했다.

IS가 2년 이상 장악한 주요 근거지인 이라크 팔루자와 시리아 라카에서 점점 세력을 잃고 수세에 몰리자 서양 젊은이들의 탈출 시도가 늘었다고 WSJ는 분석했다.

한때 서양인은 IS에 가입하면 조직에서 권력과 지위를 보장받고 공짜 음식, 집, 차량 등을 받는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국제동맹군 공습이 거세지면서 비축 식량이 떨어지는 등 환경이 열악해졌다.

IS에 가입했던 서양인이 고국으로 돌아가려면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한다. 국경을 접한 터키로 탈출자가 넘어오면 터키와 탈출자의 본국은 이 사람이 위험인물인지를 면밀히 평가한다.

제2의 파리 테러나 브뤼셀 테러를 막으려는 취지다.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테러는 프랑스나 벨기에 등 유럽 국적을 가진 IS 조직원들이 중동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가 지지를 범행이었다. IS 탈출자는 터키 정보 당국에 최소 한 달 정도 억류되고서 본국 대사관으로 인계된다. 대사관으로 넘겨지고 나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다.

한 유럽 국가 외교관은 “단정치 못한 차림으로 터키 양카라에 있는 대사관이나 이스탄불 영사관에 찾아와 여권을 분실했다며 재발급을 요청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있다”고 전했다. IS는 조직원을 가입시킬 때 여권을 압수한다. 최근 몇 개월간 서양인의 IS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IS가 터키 국경에서 가까운 시리아 도시 아자즈를 공격해 주요 탈출 경로가 위험한 상태다.

IS에 가입한 한 10대 북유럽 소녀는 6개월 전 아버지에게 “아빠 도와주세요. 탈출하고 싶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지는 딸이 2013년 말 IS에 가입했다며 집을 떠나 락카로 간 이후 계속 집으로 돌아오라고 딸을 설득해왔다.

딸이 결국 ‘SOS’를 보내자 아버지는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됐다. 또 집으로 가려면 우선 터키를 거쳐야 한다. 아버지는 이러한 사실을 전화와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딸에게 전했다. 이 소녀는 도망치다 붙잡힐 게 두려워 아직 락카에 있다.

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의 중심을 만지시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십니다.

2) 효험 있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기도가 효험이 있습니다. 예수를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빌 길을 얻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의인의 반열에 섰으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증보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그(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사53:4).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흘린 보혈로 우리의 질고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고난당하는 자”와 “병든 자”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을 안고 주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그것들을 담당해주시니.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3. 방화중

방화중은 1876년 경 황해도 안악에서 방기창의 아들로 태어났다. 때



방화중

는 1851년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난 아버지 방기창이 황해도 어로면 유사, 천도교 황해도 접주 및 오동도령이었던 때다. 아버지가 1893년 기독교인이 되면서 온 가족이 사무엘 마켓의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 출석했다. 방화중이 17세 때의 일이다. 아버지가 1898년 장로로 선임되고 1901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는 모습을 보면서 방화중이 자랐음으로 그가 한국에서 교회를 인도한 경험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 같다. 그는 1902년 12월 하와이 최초 이민선에 몸을 실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주 사역

하와이 농장의 한인들 중 몇몇은 1905년 이후 대북 철도회사와 북태평양 철도회사에 합입어 미국 본토로 이주했다. 이로써 가주의 상황과 나성에 한인들이 거주하게 된다. 방화중도 이 중의 한 사람이

었다. 1904년 9월 도산 안창호 등 9명의 한인 동포가 친목회를 조직한 후 이 중 몇몇 기독교 신자들이 따로 예배를 드렸을 때 방화중도 동참했다.

그는 문경호와 함께 전도회를 조직하여 예배를 인도하고 전도한 차의석은 방화중이 설교하는 예배에 참석했다. 주일 오후 한인 황씨의 여관 거실에서 몇몇 인사 상인과 미국인 집에서 일하며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출석했다. 그런데 모두 일어나 폐회 찬송을 부를 때 주먹만한 돌이 폭탄처럼 날아와 혼비백산했다고 차의석은 회고한다.

미국 감리교 존슨 목사가 1905년 7월 상황에서 한인 미션회를 설치할 때 내한 선교사 존슨 목사의 추천으로 방화중이 미션회를



1906년 나성한인장로교 미션

담임하였다. 그 후 미션 흡이 미국 남감리교단에 가입하고 양주삼 전도사가 1906년 11월부터 시무하게 된다.

평양 신학교 교장 마켓 목사는 1906년 안식년을 맞아 나성을 찾았는데 인근 한인들을 심방하고 권면할 사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던 중 방화중을 만나게 된다. 마켓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교 나성 노회와 교섭하여 나성 한인장로교 미션(기도처)을 설립하였다.

본 창립예배가 그 해 5월 10일 병거힐 2층 사가 건물에서 A.B. 프리차드 목사의 사회로 18명이 모여 방화중 전도사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그는 나성 인근의 한인 거주지마다 방문하고 전도하였고,

목적하고 상향한인감리교 미션 흡에 임시사무실을 두었다. 방화중은 황사용과 함께 1909년 5월 12일에 300명 교인을 묶어 감리교회를 세웠는데 상향한인교회 청년회가 현금한 65달러가 큰 역할을 하였다.

방화중은 사회 사역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1903년 상향천목회가 조직되었을 때 회장을 맡았다. 그는 나성 인근의 한인 거주지마다 방문하고 전도하였고, 목적하고 상향한인감리교 미션 흡에 임시사무실을 두었다. 방화중은 황사용과 함께 1909년 5월 12일에 300명 교인을 묶어 감리교회를 세웠는데 상향한인교회 청년회가 현금한 65달러가 큰 역할을 하였다.



사무엘 마켓 선교사

1914년에는 기숙학생 17명과 등교학생 22명 등 총 39명의 한인 학생이 등록했다.

미국 상황의 대한인국민회는 1천여 명의 멕시코 유카탄의 한인 노동자들 권익 보호와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견목위원으로 방화중과 함께 황사용을 파견했다. 그들은 1909년 5월 9일에 313명의 창립회원으로 대한인국민회 메리다지방회를 설립하였다. 1909년부터 미주 한인사회 통합에 뜻을 둔 방화중은 국민회에서 임원을 맡아 활동했고, 그 해 2월 신한민보가 창간될 때 노력을 많이 했으며, 1911년에는 평북 선전 대동고아원의 외교주무원으로 선정되어 서양인 교회의 후원을 추진했다.

학원 교장을 역임했다. 그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독립 쟁취를 위해 파리평화회의 대표 파견 문제를 협의할 때 방화중도 머리를 맞았다.

나성 사역

방화중은 나성으로 재 이주한다. 1924년 10월 나성한인장로교 미션의 몇몇 교인들이 자유교회를 설립할 때 방화중은 흥지법과 조성환 등과 함께 장로교 미션의 재건을 꾀했다. 1928년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나성에서 개최한 만국주일학교 대회에 참석한 한국 대표를 위한 환영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전신인 미션에서 6년간 조사로 시무 클라몬트 학생양성소장 맡아...1914년엔 한인 39명 등록 하와이, 나성 오가며 교회설립하고 한인사회에 적극 헌신

1907년 3월에는 마켓 선교사와 함께 남가주 각처에 있는 한인 노동자를 심방하였다. 그런데 그 해 6월 미국 장로교회가 한인을 위한 미션을 새로 설립하였는데 이때 방화중은 조사로 임명되어 약 6년간 시무했다. 본 교회는 2016년 현재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가 되었다.

나성 인근 옆랜드에서 김종혁, 장문선, 김중길, 장문호 등이 예배당을 마련하고 옆랜드 한인 장로교 미션이 조직되던 1907년 3월 5일, 방화중은 전도사로 청함을 받았다. 본 미션은 한인 노동의 형편에 따라 이주하는 까닭에 1918년 1월에 폐지되었다.

방화중은 1907년 7월 13일에 양주삼, 이교단, 장라득 그리고 오대영 등 각 교단 대표자들과 함께 한인연합교회를 발간하였는데 한인 교우의 연합상통과 신덕 배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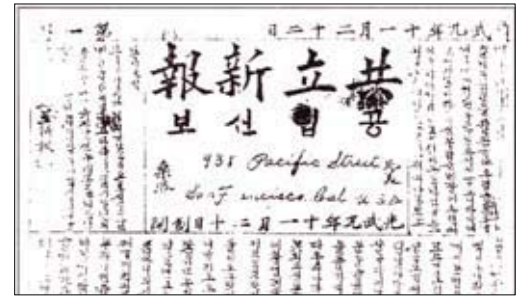
도산 안창호를 돕는 회계 및 학무를 겸임하였다. 1905년 4월 본 친목회가 공립협회로 변신하면서 방화중은 그 해 11월에 상향에서 공립신보가 발간될 때 임치성 등과 함께 편집인자 식자인으로 3년 2개월간 활동했다.

1907년 방화중은 도덕심 배양에 유익한 도서를 본국서 구입하여 필요한대로 전파하였고, 익년 방화중은 양주삼 등과 함께 국내의 좋지 않은 상황에 따라 각 지역에 한인자치체를 결성토록 주선하였다. 그 해 3월 나성에서 한인 동포가 외국인에게 토지를 파는 악패를 금하고서 방화중이 주동이 되어 권업주식회사를 발기하였다.

1908년 8월 나성 인근 클라몬트에 설립된 클라몬트 학생양성소는 방화중의 노력이 크다. 그는 학교장이었다. 인근 소학, 중학, 대학 등 공립학교에서 공부한 후 저에게는 국어, 한문, 체육, 음악 등을 가르쳤고, 주당 3일 저녁에 군사훈련을 하여 삼민주주의 정신을 길렀으며 상호 토론과 단담을 통해 덕성을 기르고 지식을 습득하였다.

하와이 사역

1912년 2월 초 방화중은 부친 방기창 목사의 서거 소식에 귀국하였다가 1년 후 다시 도미하여 나성에서 평신도로서 교회에 출석하였다. 1918년 3월 방화중은 하와이 감리교회 목사로 부임한다. 이듬해 그는 미주 한인학생운동선교



공립신보 창간호

회 하와이 지방위원을 역임하였다. 본 회는 만주에 본국 장로연합회가 선교사를 파송케 하고 그해 2월에 1백 달러를 우송했다. 방화중은 하와이에 부임하던 그해 중앙

나성의 남녀 동포 3백 명이 1925년 조국 동포의 기근 참상을 듣고 임시 조국 동포구제회를 조직할 때 방화중은 서기로 활동했다. 본 구제회는 그 해 2월 17일에 경성 조선 기근구제회 회장 이상재에게 미화 500달러를 우송했다. 1925년 6월 28일 나성 한인 졸업생 축하회에서 방화중은 '신진에게 대한 감상'이라는 간단한 축사를 담당했다. 1927년 나성에서 흥업저금회가 조직되었는데 방화중 등 12인이 장차 흥업에 종사하려는 목적을 두었다.

잡화상, 광고 사업, '새서울' 여관 등을 경영하던 방화중은 1940년 12월 11일 카운티 판 병원에서 노환으로 소천했다. 향년 64세였다. 2014년 11월 17일 수국선영의 날에 방화중은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damien,sohn@gmail.com

그게 그런 뜻이었어? -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37)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지옥문을 쳐부수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해온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영원무궁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음부

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문을 닫지 않을 것이다. 어떤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헤치고 나갈 것이다. "여기에서 정말 그런 뜻일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에서 권세는 헬라어로 'pule'이다. 이 말은 개역한글판 난하주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권세가 아니라

'성문'을 의미한다. 모든 영이 성경에서도 "gates of Hades"로 되어 있다. 새번역에서도 이렇게 번역했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정말 그런 뜻일까? 'hades'는 죽음보다는 음부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 하데스는 죽음이요 하는 상태를 나타내기 보다는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적

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표현이 이상하지 않은가? 문은 적으로부리 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음부의 문들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된다. 이 구절은 교회가 음부의 문들을 쳐부수고 음부의 문들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해 오지 않았는가?

이 구절은 사탄의 왕국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교회가 사탄의 왕국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다. 교회가

사탄의 왕국이 교회의 공격을 받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누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누탈하리라"(마12:28-29).

여기서 '강한 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말한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방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공격해 들어가야 한다. 그 집을 강탈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더욱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마11:12).

천국은 쳐부수고라도 들어야 가한다. 천국은 탈취하는 자가 차지하게 되어 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뜻인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뜻일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하늘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천국문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 천국문을 안 열어준다고 광광 두들기면 열어주실까? 천만에다. 천국문 앞에서 아무리 때를 써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누구라도 열 수가 없다.

(12면으로 계속)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p>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Tel: (610)222-0691,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벤넬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택영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kinton, MA 01748</p>	<p>살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p>	<p>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nychurch.org</p>	<p>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Tel: (501)920-9049, 사택: (501)24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p>	<p>앵커리지얼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Tel: (907)344-6446, Fax: (907)344-319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스얼린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Tel: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아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www.mpcoc.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c.com</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보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p>



청교도 신앙 ⑨

청교도들의 설교에 대한 안목(상)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들어가는 말

한 시대와 사회의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는 개혁의 방법은 기존 질서의 왜곡됨을 인정하거나 과격하게 고치는 것을 지양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방법이다. 종교개혁 시대 독일의 개혁자 마틴 루터(Martin Luther)와 취리히의 개혁자 울드리히 쾰빙글리(Huldreich Zwingli), 그리고 제네바의 개혁자 요한 칼빈(John Calvin)은 이런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런 흐름을 따라 청교도들은 무지와 미신으로 가득찬 영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과격한 혁명가의 방법이 아니라,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던 개혁자들의 전통을 따라 영국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칼에 의한

고 탁월한 역사"이며, "사람들을 은혜의 상태로 부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청교도 존 코튼(John Cotton)도 설교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는 '생명의 샘인 그리스도'(Christ, the Fountain of Life)라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로 전파되거나 임하지는 것, 들려지거나 성경회를 통해서 증거 되는 것,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라고 증거하였다.

성경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권위라는 청교도 조나단 미첼(Jonathan Mitchell)도 "말씀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묻는 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것을 적용함으로써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

드의 종교개혁 신학, 특히 설교론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교회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설교운동은 평가되는 청교도주의의 설교 이해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의 설교에 대한 안목을 이해하는 것이 청교도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다.

퍼킨스는 16세기 영국 국교회를 종교개혁 정신에 근거하여 바르게 일깨웠으며, '퍼킨스의 가장 거대한 제자' 에임스는 대륙으로 건너가 새로운 토양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그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발휘하며 청교도주의를 이식한 공로자이다. 교회사에서는 퍼킨스를 '청교도주의의 아버지'로, 에임스를 최초의 개혁

비는 설교내용 준비와 설교전달 준비로 나누어진다. 설교준비는 말씀의 부지런한 개인연구가 요구된다.

2) 설교자가 마땅히 힘써야 할 부분

이를 위해 설교자가 마땅히 힘써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 교리와 더불어 성경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둘째, 성경을 문법적, 수사적 논리적 분석을 하고, 다른 도움도 받으며 이해해야 한다. 셋째, 초대교회로부터 인정된 정통 신학에 입각한 글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넷째, 성경을 연구할 때 떠오르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생각들을 기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의 눈을 열어 성경을 밝히 이해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다.

물론 철학자나 고대 교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사람의 증언들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교리와 더불어 성경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퍼킨스의 입장에서 16세기 종교개혁시대의 긴박한 현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퍼킨스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적용을 돌로 나누는데, 복음적 적용과 율법적 적용이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죄의 질책을 치료하지는 못하며,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구체적인 삶을 가르치며 성령의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교회)

예수님이 그리운 날...

날씨가 좋다고 하지만 내가 직접 느껴보아야 겠기에 창문을 열고 날씨를 음미해본다. 요즘 들어 텍사스에 잦은 흐린 날로 또 비 오는 날로 인해 가슴이 행복하네 이런 날이면 나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분들이 있다. "사모님, 사모님 날이예요." 이렇게 햇볕만 구름 속에 가려도 막 살아나는 내게 남편은 내 속이 음침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나는 날씨만 흐려져도 잠잠히 할 일도, 또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아져서 책상위에 할 일들이 수북이 쌓이는 걸 어떡하나... 이런 날은 영광없이 예수님이 그리운 날이다.

특별한 사람이 감사도 잘한다는 말은 곧 감사도 기억하는 사람이 잘 한다는 뜻일 게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야 그 말씀으로 쓴 가슴도 살아나고 힘들다고 아우성치면서도 감사도 새어 나오리. 요즘 들어 옛 노래가 그리워지는 것은 아마도 급변하는 하루가 버거워서 맘 깊이 매장되었던 노래라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닐까?

벌써 6월이다. 뭍은 튼튼히, 생각은 새롭게, 느낌은 맑게, 영은 깨끗이... 걷는 모습, 말하는 태도, 밥 먹는 태도... 그런 작은 변화들과 씨름하면서 삶을 만난다. 삶은 변화이다. 그래서 그 변화를 쫓아가려 다짐해도 여전히 다짐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오히려 그 다짐을 못 지키므로 인해 좌절과 분노가 생길 때가 더 많지 않은가. 그런데 그런 변화들은 요구해서 얻는 것보다 감사해서 얻는 것이 훨씬 크고 많은 것 같다. 매일처럼 뜨는 태양에게 어떤 것을 요구해도 얻는 것이 없지만, 그 태양으로 인해 감사하면 너무나 많은 또 다른 감사들이 줄줄이 찾아오리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불행의 시작은 일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 같다. 우리가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유달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 눈에 띄게 미모의 사람이 아니며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조상을 갖지 못한 것, 아니 굳이 굉장한 것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런 내세울 것들이 반에 반이라도 있음... 하는 속상한 바램들이 알게 모르게 영혼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것들을 앗아가는 것은 아닐까...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도 여유 있는 마음, 좀 뭉치 않고 아파도 웃을 수 있는 얼굴,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다고 방방 뛰면서도 식지 않은 커피 한잔 앉아서 마실 수 있는 시간, 일의 성취에 관계 없이 건강을 풀고 일할 수 있는 마음, 밀고 당기고 저울질 하는 피곤한 계산이 없이 그냥 필요하면 덤씩 내어줄 수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이 더 잘 길들여진 나의 삶이면 좋겠다. 덜 편하다는 것으로, 덜 가진 것으로 불행의 주제를 삼았던 일들이 어제의 일이 되고 오늘은 주어진 일상과 그저 사랑에 빠지는 행복한 겸손을 배우고 싶다.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 지려고 결심한 정도만큼 행복하다던데... 모리라는 사람은 불치병에 걸려 사지가 마비되고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죽어 가면서도 이렇게 말했던 것이 늘 내 가슴에 남아 있다. "내 처지가 너무 슬퍼서 견딜 수 없을 때 필요하면 한바탕 크게 울지만 그 다음엔 내 인생에서 여전히 좋은 것들에만 온 정신을 집중하자. 몇 분만 눈물을 흘리고 그 날의 나머지는 즐겁게 사는 거다." 무서운 병과 씨름하면서 투병하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내 모든 힘집다는 투정이 그냥 우스워진다.

오늘같이 예수님이 그리운 날, 그래서 '주님' 하고 가슴으로 그리움만 불러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발이 시려울까봐 그 발에 신겨드릴 양말을 사달라고 졸라대는 한 어린아이의 마음같이 작고 낮게 주님 앞에 서 본다. 그래서 더 섬세하고 친절하게 우리 속에 '나'를 밀어 넣으며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사랑하는 나눔을 통한 치유가 곁에 다니고 숨쉬고 웃고 울고 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절절한 영혼의 노래로 울려 퍼져 끝까지 아름다우니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changsamo1020@gmail.com

설교(죄인을 구원하는 능력) 운동 통해 교회와 사회 개혁 시도

퍼킨스의 설교이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해석자의 직무"

하나님 나라의 실현보다는 설교 운동을 통해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다. 영적인 겸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 운동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교회들이 무지와 미신으로부터 개혁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그러므로 청교도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청교도의 설교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을 전개하면서 오덕교 교수의 "청교도의 설교 이해"와 주도홍 교수의 "청교도주의의 설교이해", 그리고 서창원 교수의 "청교도 신학과 신앙", 그리고 로이드 존스의 "청교도 운동과 계승자들"을 많이 참조하고 발췌 인용하였다.

1. 청교도의 설교 이해

설교 없는 청교도 운동이나 청교도 없는 설교 역사를 생각할 수 없기에 청교도의 설교 이해는 청교도 이해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교도들은 설교를 거듭남의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청교도의 진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설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사역에 속하는 가장 위대하

와 같이 청교도들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은혜의 상태로 부르는 것이 설교자의 설교라는 것으로 정확히 이해하였다.

2. 청교도 설교가 퍼킨스와 에임스

설교학에 대해 정립한 청교도의 설교의 대가 두 명을 선택한다면 윌리엄 퍼킨스(W. Perkins, 1558-1602)와 윌리엄 에임스(W. Ames, 1576-1633)이다. 이들은 영국의 대표적 청교도들이며, 종교개혁시대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16세기 중후반 영국 국교회와 17세기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배경으로 제시되는 이 두 사람의 설교이해는 당시의 상황과 신학을 그대로 담고 있다. 물론 두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선생과 제자 그리고 동역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종교개혁의 역동적인 역사적 전개와 긴밀한 상관성이 있다. 두 사람은 18년의 나이차가 있었으며 격동의 시대를 살아갔으며, 이 두 사람은 영국과 네덜란

교회 윤리신학자로 일컫기도 한다.

3. 퍼킨스의 설교와 설교자 이해

퍼킨스의 설교이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단지 개혁정통주의 서클의 인물들에만 영향을 받은 설교 이해라기보다 교회사 전반에 있어 도움이 되는 인물들로부터 파생되었는데, 그는 바로 요한 칼빈이라고 할 수 있다. 퍼킨스는 특이하게 설교를 '예언'(prophecy)이라고 부르고 있다.

1) 설교의 대언(Prophecy)자로서 힘써야 할 부분

영국 국교회 소속 목사인 퍼킨스에 의하면 설교자의 대언(prophecy)에는 돌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로서의 설교와 백성을 대신한 기도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선포하는 것이고, 기도는 사람의 목소리로 아뢰는 것이다. 그러기에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과 일치성 가운데 설교해야 한다. 설교준

능력을 힘입는다.

3) 말씀과 사람의 해석자

퍼킨스는 설교자는 성령의 조명을 받는 철저한 성경 연구를 한 후,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설교자의 거룩한 삶이 요구되는데, 화목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설교자 자신이 구체적으로 화목한 삶을 이룩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그는 "어찌 더러운 입술로 마음에 거룩함도 없이 성화를 설교할 수 있겠는가?"라고 도전한다. 퍼킨스는 당시 어려운 영적 상황을 직시하며 삶이 없는 설교자들을 질타한다. "오늘날 회심자가 적은 이유는 자기 자신과도 화목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을 화목시키고자 하는 목사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퍼킨스는 목사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해석자가 되어야 하고 사람의 해석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설교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해석자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younsklee@hot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초청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본 신학교 제 27회 졸업 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다음과 같이 있사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졸업하시는 분들을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분교 학위수여식은 본교에서 함께 거행합니다.

학위 취득자

- 목회학석사(M. Div) 김대진, 김진섭, 남태성, 박병섭, 박선강, 이금순, 최진식
- 여교역학과 (Diploma) 권영주, 김정임
- 신학사 (B.Th) 김미권, 김인숙, 엄순애, 정재원, 한우연, 허준, 현종영

일 시: 주후 2016년 6월 13일(월) 오후 8시
장 소: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연락처: (718)463-7163, (718)886-4040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장영춘 박사 이사장이용걸 박사



목회서신

한국 교회와 가정의 위기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회 담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약 한 달 간 한국에서 '가정선교 집회'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초대형 교회(대구서문교회, 이상민 목사), 대형교회(대길 교회, 박현식 목사), 중형교회(동대문제일교회, 김상기 목사), 소형교회(춘천중부교회, 현흥만 목사)에서 사이드별로 집회를 하게 되어, 나름대로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가늠해 봤습니다. 집회를 마 무리하면서 한국 교회와 가정의 위기에 처해있음을 발견하고, 그 대책이 시급함을 알게되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지난 9년 간 신문지상과 책(가정선교-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가정선교의 목적은 (1)가꾸어온 가정 질서의 회복 (2)파괴된 가정의 회복 (3)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가정을 지키고 파수하기 (4)전가족의 복음화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인 가정원, 즉 전가족의 복음화인데, 집회 중 "전가족이 다 복음화 된 가정은 손을 쥌 들어보세요!"라고 확인한 결과 당일 집회에 참석한 출석교인의 10% 내외 밖에 되지 않아, 너무나 놀라서 다시 확인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이즈가 큰 교회일수록 더욱 심각했습니다.

- 1. 가정의 복음화가 절실합니다.
2. 자녀의 저출산률 문제입니다.
3. 3포, 5포, 7포 세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즉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3포에다 대인관계, 내집 마련 포기), 7포(5포에다 희망, 꿈마져 포기)라는 서글픈 세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씁쓸합니다.
4. 3포, 5포, 7포 세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삶이 한국사회와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심각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한국의 시골 초등학교 대부분이 폐교의 위기에 처해있고, 향후 10-20년 뒤에는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까지 미칠 영향도 미리 예견할 정도입니다. 이 같은 영향을 교회에도 미쳐 한국교회의 유, 초등부가 각 교회들마다 급감하고 있고, 대학, 청년부는 교회를 떠나고 있고, 100세 인생 노인들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 향후 10-20년 후의 한국교회도 서구교회, 미국 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본/사/방/문

박희성 목사(조은출판 대표)

월간지 '광야' 기억 살려 출판업 종사 계속



박희성 목사가 6일 오후 본사를 방문했다. "에너지가 아직 남아서 다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문을 연 박희성 목사는 1992년 캘리포니아에서 월간지 '광야'를 발행해 이민자들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다 2009년 은퇴와 함께 출판계를 떠났다. 초창기 선교사로 태국에서 사역을 했던 박 목사는 은퇴 후 태국과 한국을 돌아 5년 만에 다시 LA로 돌아왔다. 그는 은퇴 목사이긴 했지만 아직 에너지가 남아 무엇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슴속에 남아 있던 출판에 대한 애착이 되살아나 '조은 출판사'를 시작했다. "누구나 자서전 한권쯤은 갖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 '글 솜씨가 없어서'라고 못무거겁니다. 이런 분들을 도와 글을 정리하고 다듬어서 예쁘게 완성시켜 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다른 출판사와 다른 점이지요. 살면서 적어두었던 메모들이나, 인터뷰를 통해서도 책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1992년 당시 월간지 '광야'는 믿는 이들에게 더 많은 신앙의 자료들을 제공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일반 이민 사회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또한 부부나 자녀, 법률문제, 문화적인 갈등, 이민 전문지식까지 실어 이민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4.19폭동이 있던 그해 5월 첫 선을 보인 광야는 어려움을 당한 당시 피해자들과 교

민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줬었다. 그래서인지 박 목사에게 '광야'는 더 없이 애뜻함으로 마음에 남아 있는 듯 했다. "이제 '광야'라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지만 모든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자서전을 하나씩 얻을 수 있도록 한껏 돕고 싶다"고 말하는 박 목사는 이 일 외에도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귀띔했다. "태국 선교에 대한 꿈을 이어가기 위해 미국 내 태국교회에서 청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선교를 계속하고 있고 효사랑 노인대학에서 영어설교를 통해 영어를 가르치며 복음도 함께 나누고 있다"고 근간의 상황을 소개하는 박 목사는 '일이 있어 행복하다'고 외치며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다. 출판에 관한 문의는 모든 행정을 맡고 있는 박명순 사모(626)789-1301/(626)522-9909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김성로의 부활중심 신앙개혁이 교회에 미친 악영향”

‘바른 믿음’ 뉴욕 세미나, 강사 정이철 목사

“바른 믿음” 뉴욕 세미나가 정이철 목사(앤아버반석장로교회 담임, 바른믿음 대표)를 강사로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뉴욕 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개최됐다.



정이철 목사가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주제는 “김성로 목사의 부활 중심 신앙개혁이 교회에 미친 악영향”으로, 정이철 목사는 한국 춘천한마음침례교회 김성로 목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성로 목사가 2001년부터 나름대로 시작한 신앙개혁 운동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에게서 벗어나 부활하신 예수에게로 돌아가지는 것, 김성로 목사는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에게만 집착해 초대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초대교회가 전파했던 부활한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주장한다는 말이다. 정이철 목사는 김성로 목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초대교회의 산 예수를 증거하는 신앙이 역사적으로 계승되지 못했다. 2)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고 다시 사신 예수가 구세주다. 3)믿음은 부활이라는

객관적 증거와 표적에 의해 생겨나고 확증된다. 4)십자가 제사는 임시제사였고, 예수가 부활 후 하늘성소에서 제사 차를 참제사다. 5)고전15:17은 부활이 신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준다고 분명히 선언한다. 6)처음부터 땅과 하늘에 성소가 각각 있었고, 부활한 예수가 하늘성소에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드린 제사가 영원한 제사다. 정이철 목사는 “김성로 목사의 부활신앙은 공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부활신앙과는 아주 다르다. 공교회가 성경에 근거해 확립한 십자가의 대속과 구속의 완전성과 절대성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김성로 목사는 2015년 하늘정원교회에서 개최된 ‘부활복음세미나’에서 “세계 교회의 십자가중심의 신앙을 부활중심의 신앙으로 고치는 개혁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룰 사명자”라고 자신의 소개했다고 말했다. 강사 정이철 목사는 “신사도 운동에 빠진 교회”, “제 3의 물결에 빠진 교회”, “가짜 성령세례에 빠진 교회” 등을 저술했으며, 바른믿음(www.good-faith.net)을 운영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크리스찬문학 제 27집 출판기념회

박재호 목사 등 문인협 헌신자들에 감사패 전달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정지훈 목사)는 크리스찬문학 제 27집을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5월 28일 오전 10시 작가의 집에서 송종록 목사(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한기형 목사 기도(나성동산교회), 마가렛리 특송과 정해진 목사(명성교회 담임)의 설교(복있는



제 27집 크리스찬문학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자, 시33:11-12), 송택규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어 정지훈 회장의 인사로 출판기념회의 막이 올라 김문희 고문이 연혁을 소개했으며 송정명 목사(월드미선대학교 총장) 축사, 남철우 목사(미주기독교방송 대표)의 격려사가 있었고, 최선호 평론가의 서평이 있었다. 한편 이날 문인협회를 위해 그동안 헌신한 박재호, 최향량, 정해진 목사, 임승향 변호사 전상희, 이준수 서예협회 고문, 이마가렛 찬양사역자, 권용선 화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패를 전달했다. (이성자 기자)

Worldwide church directory listing various churches such as '동부(NY, NJ)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리빙스톤교회', '에벤에셀교회', '예사랑교회', '퀸즈교회', '퀸즈한인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브라질 새소망교회',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토론토 가든교회',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하와이 행복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each.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미남침례교 한인교회 35차 총회

미국남침례교(SBC) 한인교회(총회장 김상민 목사) 35차 정기총회가 6월 20일(월)부터 23일(목)까지 워싱턴 주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최성은 목사)에서 열린다. “큰 명령, 다 함께”(The Great Commission, all Together..!)라는 주제로 열리는 총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http://www.cksbca.net/main/)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972)221-8026/총무 엄종오 목사

미드웨스트대 글로벌리더십 국제포럼 및 학위수여식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 송 박사) 2016년 학위수여식이 6월 17일(금) 미조리 주 세인트루이스의 본교에서 열린다. 6월 13-16일은 집중세미나가 열리고, 17일 오전 8시30분부터는 글로벌리더십 포럼이 열리며, 오후 3시부터 학위수여식이 시작된다. 저녁 7시에는 식후행사로 개교 30주년 기념 뮤직페스티벌이 음악과 재학생들과 지역 미국교회들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지역 음악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된다. 18일(토)에는 국제복음주의협회(IEA) 주관으로 목사 및 선교사 고시를 합격한 사역자들에게 대한 안수식이 거행된다.

▲문의: (636)327-4645, usa@midwest.edu

담임목사 청빙

플로리다 재선발한인장로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PCUSA 소속이거나 가입 가능한 정규 신학대학원 M. Div학위 이상, 한국어 영어 소통이 자유로운 영주권자로, 제출서류는 PCUSA PIF(pcusa.org/cic, MIF ID P0310739), 본인 및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신앙여정과 신앙고백서(2페이지 이내), 목회비전서(2페이지 이내), 신학교졸업증명서, 목사안수증명서, 최근 6개월내 설교 CD, DVD 2개, 혹은 동영상 주소, 3명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www.jaxkpc.org

▲문의: (904)355-9793, billysongsos@gmail.com

“지성소 예배”

예배 사역자 유태웅 목사가 인도하는 “지성소 예배”가 6월 14일 오후 8시 뉴욕새침례장교회(담임 박태규 목사)에서 열린다. 정기적 화요 지성소 집회 준비를 위한 공개 예배로 찬양사역자 이은수 목사, 제시유 음악감독, 이광선 집사가 특별출연 한다.

▲문의: (646)258-4161

뉴욕장로성가단 제 12회 정기 연주회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이보춘) 제 12회 정기 연주회가 6월 19일(주) 저녁 6시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이경진 지휘, 반주 조은희와 소프라노 최성숙, 바리톤 오희평 등 솔리스트들과 뉴욕목사합창단, 뉴욕예향선교무용단도 출연한다.

▲문의: (718)570-5394

담임목사 청빙

아이오와 주립대학이 소재한 에임스(Ames)에 있는 북미주개혁장로교단(CRC) 소속 에임스반석장로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 조건은 학원사역과 이민목회에 비전과 열정이 있는, 정규 대학과 신대원 졸업(M. Div)자로 목회경력이 있고 영주권/시민권 소유자. 제출 서류는 이력서(6개월 내 촬영 본인 및 가족사진 동봉), 신학교졸업장 및 목사안수증명서 각 1부, 자기 소개서(신앙간증, 사회경력 등 포함), 목회비전과 소명서, 추천서(목회자 2명) 2부, 최근 1년 내 설교 2회분(동영상 상파일, CD, DVD 또는 웹주소). 서류마감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청빙이 완료될 때까지

▲접수 및 문의: kccrcames@gmail.com(전화문의의 사절)



퀸즈장로교회 선교바자회회가 진행되고 있다.

퀸즈장로교회 선교바자회 풍성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지난 4일 “함께 하는 선교바자회”를 통해 여러 단기선교를 후원하게 된다.

이번 바자회에도 예년과 같이 비빔밥, 우동, 만두, 떡볶이, 영양밥, 김밥, 각종 전류, 과일, 생선, 김, 멸치, 음료 등 음식과 뷰티용품, 스킨케어, 헌옷, 화분, 수공예품, 잡화류,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하나님 목적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

뉴욕교협 제3차 임실행위원회 및 할렐루야준비기도회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이 지난 6일 제 3차 임실행위원회 및 할렐루야대회 준비기도회를 가졌다.

오전 10시30분 뉴욕수정성결교회(담임 황영송 목사)에서 열린 실행위는 안장의 목사의 개회기도에 이어 회원점명(한준희 서기), 업무 보고(박진하 총무)의 순서로 진행됐다.

보고는 △2016 할렐루야 복음화대회-강사 원팔연 목사(전주 바울교회 담임) 홍보동영상 상영 △체육대회는 노동절 전후로 연기 △에콰도르 구호금 전달 내역-총구호금 14,700달러(교회, 단체, 개인), 구호품 3,995.39달러, 현재교회건물 자재 2000달러, 어린이 사역 3000달러, 경비 1,069.12달러, 잔액 2,805.16달러 △감사보고(김기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임용수 목사 인도로 기도, 오태환 목사, 설교 황영송 목사, 광고 박진하 목사, 축도 황경일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황영송 목사는 “합심하여”(마 18:18-20, 출13:20-12, 14:21)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군사적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최고의 기술들이 첨단시대 스마트폰, 인터넷, GPS 등으로 발전됐다”며, “GPS는 땅의 길을 하늘에서 알려주는 것인데 땅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매어놓아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매어주시고 하늘에서 먼저 풀어야 이 땅에서 풀 수 있다. 이 땅은 사탄에게 이미 장악돼 있다. 우리의 빈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 대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주시길 믿는다”고 말했다.

황 목사는 “주님이 함께 하신 곳에 능력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 우리의 생각과 목적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교협 제3차 임실행위원회 및 할렐루야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할렐루야 준비위원장 이만호 목사는 “18개 지역으로 나뉘 20-23명의 준비위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중요한 두 가지, 동원과

지원금 후원이 잘 이뤄져 부족함 없는 영적 잔치가 되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네기홀 찬양대 합창제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CBSN 주최 카네기홀 찬양대합창제 1차 기도회...9월18일 아이작스톤 오디토리움

뉴욕기독교방송 CBSN이 주최하는 카네기홀 찬양대합창제 준비를 위한 1차 기도회가 6월 2일 오전 11시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렸다.

오는 9월 18일(주) 오후 8시 카네기홀 아이작스톤 오디토리움(메인홀)에서 열리는 찬양대합창제에는 엄선된 찬양대가 참가하며 찬양대 수익금은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장애인과 노숙인 구호단체를 돕는다. 현재 참가가 확정된 성가대는 한

국의 서울장로성가단, 인천장로성가단, 코랄카리스합창단, 익산장로합창단 등 4팀이며, 해외의 뉴욕교회연합 합창단, 미주웨슬리연합합창단, 시카고장로합창단, 프라미스연합합창단, 뉴욕권사선교합창단 등 5팀 등 총 9팀이다.

조직위 공동회장을 맡은 뉴욕교협 회장 이종명 목사는 “이번 합창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복음을 전하는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고, 그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인데, 이 찬양제가 준비과정과 그 열매에 놀라운 역사를 가져 올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대회 주최인 CBSN 대표로 사무총장을 맡은 문석진 목사는 “처음 한국에서 이 프로젝트를 의뢰 받았을 때는 엄두도 내지 못했으나 CBSN 방송국 기도팀과 기도를 울리며 결심하게 됐다. 또한 지난 3월 한국에 방문해 최소 25년에서 38년 전통의 4개 합창단의 연습 과정을 지켜보며 뜨거운 감동과 은혜를 체험했다”고 말하며, “한국의 4개 합창단에서 290명, 스태프와 동행 500명이 8박 9일의 일정으로 뉴욕에 오게 되며, 뉴욕일원과 시카고

이날 준비기도회는 이종명 목사 사회로 △미국과 조국을 위하여(김상태 목사) △뉴욕동포사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하여(박준열 목사) △할렐루야 2016 대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하여(김정숙 목사) 제목으로 특별 통성기도 했다.

4차 준비기도회는 6월 20일(월) 오전 10시30분 뉴욕예일장로교회(담임 김중훈 목사)에서 열린다.

할렐루야 복음화대회는 원팔연 목사를 강사로 7월 15일(금)부터 17일(주)까지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리며 같은 시간 체육관에서 어린이복음화대회(강사 알렌 우)가 열린다. 청소년 복음화대회는 9월 9일(금)과 10일(토)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린다.

또 18일(월) 오전 9시부터 금강산 식당에서 원팔연 목사를 강사로 목회자 세미나도 진행된다.

(유원정 기자)

에서 700여명의 합창단이 참석한다. 이렇게 많은 인원의 참가를 맞이하고, 2천 5백석의 객석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문 목사는 대회의 의의에 대해 “사회가 기독교를 차갑게 바라보는 가운데, 교계도 위축되어 단일한 활동을 이어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다. 이런 패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깃발을 더욱 높이 들고, 찬양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밝히며, “특히 참가팀 중 뉴욕의 중소형 교회 합창단이 연합하는 뉴욕교회연합 합창단이 의미가 큰데, 각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 연습하고 친교하는 과정에서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 화합하는 귀한 경험이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준비기도회는 사무차장 김경열 목사의 인도, 뉴욕목사회장 김영중 목사의 기도, 행사위원장 유지종 장로의 성경봉독, 찬양사역자 이광선의 특송, 뉴욕교회연합 이종명 목사의 설교, 자문위원 방지각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준비과정 보고는 사무총장 문석진 목사의 소개, 홍보영상 상영, 공동대회장 김영식 목사의 인사, 준비위원장 양민석 목사의 인사 등의 순서가 있었고, 3부 합심기도는 양민석 목사의 진행으로 김태수 목사, 김태욱 목사, 전희수 목사 가 각각 ‘합창제의 성공적 연주를 위해’, ‘교회간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 등의 주제로 기도를 인도했다. 김상태 목사(뉴욕목사회 부회장)의 만찬기도로 마쳤다.

한편, 뉴욕교회연합합창단과 미주웨슬리연합합창단은 각 교회 성가대원, 또는 담임목사 추천을 받은 성도들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문의 (347)538-1587



Southern California Seminary

Southern California Seminary(SCS)는 미국 학교로는 처음으로 심리상담학 석사(MACP)와 결혼 가족 치료사(MA in MFT) 그리고 심리상담학 박사(Doctor of Psychology)를 한국어 과정(한/영 이중언어)으로 개설하였습니다.



SCS 는 미 연방정부 TRACS 인가 학교로서 The California Board of Behavioral Science와 California Board of Psychology 에서 인증 받은 학위과정 입니다.

* I-20 발행-유학생 환영

SCS의 Behavior Sciences 대학원은

- 석사 및 박사 과정 후 CA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 면허를 취득하시면 직접 클리닉 개업 가능합니다.
- 졸업생들은 전문상담사, 임상 심리 치료사, 가정사역자 등 비영리 기관, 병원, 교회 등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 동급의 다른 학교 학비와 비교해서 저렴한 학비로 공부하실 수 있으며 수시입학이 가능합니다.
- 학자금보조신청 (Federal Student Financial Aid)이 가능하며 부부장학금, 교회 및 기관 사역 장학금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 상담, 약물중독 상담, 전문코칭 등 여러 상담 관련 교육 과정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NEW

- MA in Christian Ministry (신학부 석사과정: 평신도, 직분자, 교회 리더를 위한 1년 석사과정 개발) 한국어 신학부 : 안국환 교수 kukwhan.ahn@socalsem.edu, 619.201.8982

심리학교수님 초빙

박사학위 및 라이선스 소지하신분

자기소개와 이력서를 samuel.lee@socalsem.edu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500 Wilshire Blvd. Suite 700 Los Angeles, CA 90057
www.socalsem.edu/korean

이사무엘 samuel.lee@socalsem.edu 323.529.3339 / 323.205.5880
이운진 yunlee@socalsem.edu 323.248.1648

“용서받은 죄인들” ..강사 박보영 목사

OC교협과 OC평연 공동주최 말씀회복집회 성황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승기 목사)와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회장 유우경 집사)가 공동주최한 박보영 목사(인천방주교회 담임) 초청 말씀회복집회가 1일 오후 7시

30분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민승기 목사 사죄와 감사한인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김영길 목사가 환영 인사를 했

으며, 유우경 회장이 기도, 감사한인교회 사랑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박보영 목사가 “이 길, 확실히 됩니까?”(행9: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보영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한다. 성령님이 내안에 들어와 있으려면 먼저 거둬야 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OC교협과 OC평연 공동주최 박보영 목사 초청 말씀회복집회에서 박보영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 제25회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과 학교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나가야”

월드미션대학교 제25회 학위수여식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 제 25회 학위수여식이 4일 오후 1시 동양선교회(담임 박영은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송정명 총장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공부하여 귀한 이 자리에 동참하신 졸업생 한분 한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구체적인 도움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임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하며, “오늘 졸업하는 분 중에는 졸업 후에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하는 분도 있지만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 어느 쪽이든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달려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명상 학우가 졸업생이 답사가 있은 후, 윤혜영 학우의 인도로 졸업생, 회중, 교수단들이 헌신의 기도를 드렸다. 이어 고가제장을 한 후 본교설립자 임동선 목사의 축도로 학위수여식을 마쳤다.

다음은 학위수여자 명단. △MACC: 승기선, 백미경, 서세진, 윤성희, 이수하, 이주연, 장하얀 △MAM: 김준, 김민규, 김은정, 남주영, 안효정, 오정근, 최솔 △MAT: 리광, 박경희, 성지혜, 정동일 △M.Div.: 김기홍, 김대위, 김용민, 김장환, 문명상, 박근부, 송기형, 유광미, 윤성현, 이영성, 임옥선, 임현정, 정영근, 정현기 △BAM: 장슬기, 이준섭, 민경호, 이재수 △BACC: 강병급, 송영신, 신윤수, 이혜자, 정인정, 최영자 △BASS: 강영이삭, 김민승, 김명미, 김진완, 백케이트, 신경애, 유혜영, 현혜경. (박준호 기자)

이어 송정명 총장이 훈화했으며,



미주장신대학교 제36회 졸업감사예배 및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과 순서말은 이들이 함께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미주장신대 제36회 학위수여식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제 36회 졸업감사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4일 오전 10시 남가주동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에서 열렸다.

이상명 총장은 “배움의 공동체가 지닌 생명력은 역사와 전통에 있다. 졸업생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본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선지생도이다.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은 모교인 미주장신대와 여러분이 속할 교단과 하나님의 나라를 빛낼 훌륭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계속 성장하길 소망한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르시는 큰 축복과 칭찬으로 열매 맺기를 중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학생처장 박충기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1부 감사예배는 서남노회 회장 이철 목사가 기도했으며 서중노회장 라세영 목사가 성경봉독을, 이윤숙, 이병 학우가 특송을 했다. 그리고 KPCA 총회장 유영기 목사

박 목사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이 주님께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한 것처럼 주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질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사울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면 거둬나게 되며 속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고 믿음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CTS TV 여성합창단이 특별 찬양했으며 박보영 목사 축도로 집회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GMI 유스오케스트라 콘서트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는 방학을 맞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11일(토) 오후 7시 섬머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곡은 ‘베토벤 심포니 5’ 전 악장을 비롯해 ‘프로코프, 스타쉬프, 디즈니 클래식’ 등 다양한 곡을 준비했다. 지휘는 정승재씨, GMI Youth Orchestras는 초, 중, 고등학생으로 구성됐으며 오디션에 관한 문의는 은혜한인교회로 하면 된다.

▲문의: (714)318-2085 gmiorchestra@gmail.com

미성대학교 OC캠퍼스 여름학기 집중수업

미성대학교(총장 류종길 박사)는 OC캠퍼스 개교기념 여름학기 집중수업을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구약오경 해석’이라는 주제로 실시한다. 강사는 박준서 박사(연세대 전 부총장, 경인대 전 부총장, 명지대 석좌교수)이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의: (714)204-5223

그랜드캐년 창조과학 탐사여행 참가자 모집

세계창조선교회(회장 박창성목사)가 주최하는 그랜드 캐년 창조과학 탐사여행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5일-7일, 8월 16일-18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본 여행은 그랜드 캐년을 비롯해 브라이스 캐년과 자이언트 캐년 등 3대 국립공원을 탐사하게 된다. 창조과학 전문 사역자 박창성 목사가 직접 인도하는 본 탐사여행은 공립학교에서 실시되는 진화론적 관점의 교육으로 인해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창조와 노아홍수의 증거를 제시하며 성경의 기록들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참조 웹사이트 www.wcmweb.org.

▲문의: (503)330-2981

미주밀알선교단 사랑의캠프

미주 밀알선교단은 매년 남가주, 북가주, 시애틀, 밴쿠버 등 서부지단 연합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캠프’를 개최한다. 6월 25-27일 UC산타버바라 캠퍼스에서 ‘Rock of Ages Rolling with Christ’ (시62:2)란 주제로 열릴 여름캠프는 찬양선교팀 PPOG와 청년자원봉사팀 TRAC의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랑의 캠프는 아동 캠프뿐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캠프를 따로 편성해 참가자들이 자신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www.milalmission.com

▲문의: (657)400-9570 이메일: CLASSAGAPE@MILALMISSION.COM

“하나님 자녀로 주신 사명 소명 감당”

드림교회 입당예배

사우스베이 지역에 위치한 드림교회(공동담임 최근호 목사 김규현 목사 24614 Eshelman Ave, Unit A&D, Lomita) 입당예배가 5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최근호 목사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안형진 전도사가 잠인 12장을 낭독했으며 김규현 목사가 기도했다. 이어 최근호 목사가 ‘하나님의 전’ (대하7:11-2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 목사는 “새로운 예배처소가 생겨 우리 마음이 들뜬다. 하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말씀의 선포가 없다면 교회가 아닌 사교집단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드림교회는 2015년 12월 31일 첫 예배를 최근호 목사 집에서 드렸으며 ‘성경중심, 교회중심’을 모토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뢰로 사랑, 먼저 사랑, 멀리 사랑을 실천하며, 온전한 삶을 통해 작은 예수로서 칭송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공동체가 함께 노력한다는 사명선언문을 바탕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한편 드림교회는 예배만주자를 찾고 있다. ▲문의: (213)284-2712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3>감사한인교회</h3> <p>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일) 영양예배: 오전 9:30, 11:30</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3>나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 진우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89, Fax: (323)913-4484 1750 N. Edgemont St., La Brea, CA 90027</p>	<h3>나성영락교회</h3> <p>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일)</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h3>나성제일교회</h3> <p>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일)</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rea.org</p>
<h3>남가주든든교회</h3> <p>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드림)예배: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ccsa</p>	<h3>남가주사랑의교회</h3> <p>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월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예배(침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ka.org</p>	<h3>대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kjcc.org</p>	<h3>등문교회</h3>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youngmk.com</p>
<h3>빛과 소금의 교회</h3> <p>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 학교: 오후 5:45(월-토) 6:00(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h3>베델인교회</h3> <p>담임목사 : 김한효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2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전 1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영성) 성인영양예배: 오전 11:00 대학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3>세계소공교회</h3> <p>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목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3>은혜한인교회</h3> <p>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영양예배: 오전 9:30, 11:30</p> <p>www.graceml.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3>주님세움교회</h3> <p>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org</p>	<h3>중은마을교회</h3> <p>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학교: 오전 11:45 목요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p> <p>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6239 Fax: (714)646-6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rnestonev.com / e-mail: pastor@cornestonev.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9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3>토렌스조은교회</h3> <p>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p> <p>www.torrancecc.org Tel: 310-370-5200 /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p>	

호국보훈의 달...교계 기념행사 다채

제26회 6·25상기 구국성회 기독장병 1만5000여명 참석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교계 단체와 교회들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군종목사단(KPCA)과 한국기독교인연합회(KMCF)는 오는 23-25일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최자실기념급식기도원에서 '제26회 6·25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를 연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주제로 열리는 성회에는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와 김동호 높은뜻연합선교회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성회는 기독 장병들의

신앙전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기독 장병들과 군 가족, 군목 후보생, 각 군 사관학교 생도 및 ROTC 후보생 등 1만5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성회 기간 중에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진행 중인 독려하는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오는 22일 '제66주년 6·25 전쟁 참전용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한다. 교회는 2012년부터 매년 한국전쟁기념일을 앞두고, 교회 성도 중 참전

용사들을 찾아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43명에게 수여했다.

경기도 용인시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는 18-23일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 용사와 그 가족들을 초청해 보는 행사를 가진다. 새에덴교회는 2007년 이후 해마다 참전용사를 초청해 이 행사를 열어왔다. 현재까지 500명이 넘는 이들을 초청했다. 올해 행사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과 전쟁기념관, 판문점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경기도 고양시 거북한빛광성교회(정성진 목사)는 20-24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한다.

“북한교회 회복 · 한국교회 회개”

주빌리코리아 기도큰모임 청년대회 1200여명 통성기도

“주님 70년이 지났사오니 한국교회 회복을통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청년들이 복음통일의 깃발을 들게 하소서.”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로 송실대 한경직기념관은 '통일 코리아'를 간구하는 기도 소리로 가득했다. 전국에서 모인 크리스천들은 예배하며 눈물로 기도했다.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와 송실대 평화통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16년 주빌리코리아 기도큰모임 청년대회'에서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순수한 기도운동을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복음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는 '청년, 통일코리아의 기치를 들라'(사62:10)이다.

이날 참석자는 1200여명.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개인 회개' '한국교회·대한민국·북한 회개' '남북한 화해와 통일' 등의 주제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했다.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사무총장이관우 목사는 “목회자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복음을 변질시켜 한국교회가 절망하고 있다. 모두 우리의 죄 때문”이라며 “기성세대들의 잘못으로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통곡했다. 이 목사는 “이 자리에 목회자들이 참석했다면 단상으로 올라와 회개 기도를 드리자”고 말했다. 이에 청중석에 있던 목회자 40여명이 단상으로 나와 무릎 꿇고 기도했다.

“선교사를 제국주의 침략 앞잡이 왜곡 곤란”

한국기독교역사학회-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학술대회

“선교사들을 제국주의 침략의 앞잡이로 왜곡해서는 안된다.”

한국기독교역사학회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4일 서울 마포구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선교기념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고려대 조광 명예교수는 이 같이 강조했다. “병인박해·제너럴셔먼호 사건과 순교”를 주제로 강연한 조 교수는 “사건이 발생한 1886년 당시 기독교 신앙 자체는 조선의 전통 가치와 문화에 대한 사상적 침략으로 간주됐고, 조선의 조정은 병인박해의 결과로 발생한 병인양요를 조선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침략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조선과 통상을 요구하며 접근했던 제너럴셔먼호는 당시 지배층 입장에서 조

선의 물화를 탐해 조선을 경제적으로 침략하려 한 사건에 지나지 않았다”며 “이 가운데 조선에 그리스도교를 전하고자 했던 선교사들 다수가 순교했다”고 말했다.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교적 신앙과 이를 통한 조선인에 대한 사랑의 결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고 평가했다. 영국 웨일스 출신인 토마스 선교사는 27세 때인 1866년 조선 선교를 위해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가에 올라왔으나,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들에의 셔먼호는 불타고 동승했던 토마스는 목이 잘려 순교했다. 당시 그는 최후를 맞으며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토마스 선교사의 순

교 이야기를 전해 들은 존 뉘트 선교사는 감동을 받아 조선 복음화에 헌신했으며 1882년 최초의 우리말 성경으로 누가복음을 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스를 갈로 쳐 죽인 박종권은 존 로스가 전해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었다.

조 교수는 “당시 죽음을 당했던 신·구교 선교사들은 제국주의 침략 혹은 자본주의 침략의 앞잡이로 지탄받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선교사들은 제국주의 침략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신앙과 조선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순교라는 교회사적 사건을 한국사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해를 입히려던 침략과 연계된 행동으로 규정지어서는 안된다”며 “선교를 국가주의적 해석에 입각해 제국주의 침략이나 자본주의 팽창으로 해석하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사는 사람들”이라며 “북한 주민들과 북한 정부를 별개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분의 격려와 사랑을 받았다. (나를) 잊지 않았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됐다”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들(북한 주민)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선다면 마음의 장벽이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준길 선교사의 조속한 석방을 호소했다.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7면에서 계속)

열 처녀의 비유에도 나오는 것처럼, 한 번 닫힌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 천국문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니 무슨 말인가?

거의 모든 영어성경들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가 아니라 천국은 맹위를 떨치면서 힘차게 전진해나가고 있다고 옮기고 있다.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and forceful men lay hold of it”(NIV).

새번역 성경도 마찬가지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신천지 이미지 세탁...봉사활동 수상내역 내세워

하나님의교회 홍보 전략과 유사, 정체위장 시상자 측도 몰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주 이만희)이 홈페이지에 봉사활동으로 수상한 내역들을 대거 올리며 반사회적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미션라이프 인터넷판이 지난 1일 보도했다.

이 기사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대적으로 해온 전략을 모방해 이 같은 홍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신천지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는 ‘하늘의 빛과 비와 공기같이 변함없는 생명의 봉사로 사랑합니다’라는 글귀가 있다. 신도뿐 아니라 일반인에게 ‘봉사하는’ 신천지의 이미지로

포장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하늘문화 봉사’라는 카테고리에는 ‘하늘봉사 정신’ ‘자원봉사단 연혁’ ‘이웃사랑이야기’ ‘수상내역’으로 나눠 콘텐츠를 실었다. 수상내역에선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상한 63개의 표창장 등의 이미지를 올렸다. 이 중엔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 서울 영등포구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받은 것도 포함돼 있다. 신천지가 사이비 이단 종교라는 것을 모르고 이런 내용을 접하면 이 단체의 성격을 의심하기 힘들다.

하나님의교회도 홈페이지에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하나님의교회 WATV 수상내역 스페셜’ 코너를

만들어 136개의 표창장 등을 올렸다. 가솔과 이혼, 낙태, 재산헌납 등을 강요하며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온 것을 감추고 희석시킴으로써 일반인들을 현혹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현우 구리이단상담소장은 “최근 신천지와 하나님의교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포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이 같은 활동의 효과로 일반인 중 신천지 신도가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천지는 대부분 위장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상을 주는 주최 측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주최 측에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한복판의 동성애 축제 충격”

세계적 선교신학자 피터 바이어하우스 박사

피터 바이어하우스 전 튀빙겐대 선교학 교수는 “교회는 성경적 창조 질서를 뒤흔드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항해야 한다”며 “동성애를 포함한 성을 다양화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 선교신학자 피터 바이어하우스(87) 박사가 오는 11일 서울 광장에서 열리는 동성애자들의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국교회의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

한국신학회와 기독교학술원 등 교계 학술단체의 초청으로 방한한 바이어하우스 박사는 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상남경영관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 축제가 벌어진다는 소식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바이어하우스 박사는 “내가 아는 한국교회는 성경적 교회”라며 “교회는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확실한 기독교적 관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동성애를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망과 함께 잘못된 선택임을 분명히 지적해야 하며, 내적으로 동성애적 삶을 살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긍휼과 상담으로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젠더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천동성에 성향이 확산되고 있는 유럽 등 서구사회의 실태도 소개했다. 그는 “현재 유럽 등 서구에서 번지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자와 여자라는 말 대신 중성적 언어를 도입하고 동성애를 포함한 성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자연법칙에 어긋난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어하우스 박사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평등을 앞세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양성애 등을 ‘성의 다양성’이라고 묘사하고, 여기에 반대하면 ‘동성애 혐오자’라 비난한다”며 “상반성을 전제로 한 ‘성(sex)’ 개념이 여러 의미를 지니는 ‘젠더(gender)’라는 말로 왜곡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럽은 젠더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남학생’ ‘여학생’ 대신 ‘친구들’로(스웨덴),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1’ ‘부모2’(스위스)로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어하우스 교수는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 지난해 1월 ‘성서적 창조 질서를 뒤흔드는 젠더

미스바대성회 “동성애 · 이슬람 저지”

연세중앙교회서 열려..2만여 명 참석

예수생애부흥사회와 전국목회자 실천목회연구원, 에스더기도운동은 6일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에서 ‘미스바 구국기도 대회’를 개최하고 동성애와 이슬람 문화 저지, 차별금지법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2만여명이 참석한 기도회에서 이영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6·11 동성애 축제와 동성애합법화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브라질과 미국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등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 음란한 행사가 오는 11일 서울 광장에서 열린다”면서 “해외처럼 퀴어문화축제가 정례화되지 않도록

정부와 미디어의 지원으로 국가적 행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다수는 의미가 없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11일 서울 대관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동성애축제 반대 국민대회’에 참석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동성애 옹호·조장 문화를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영길 아이엔에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도 “동성애를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동성애 반대 활동을 금하겠다는 것”이라며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 것을

부정하고 이를 죄라고 말하면 처벌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막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국내 이슬람 유입과 한국교회 대응방안’ 강연에서 수쿠브법과 할랄식품 등을 통해 유입되는 이슬람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도회를 이끈 윤석전 연세중앙교회 목사는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단을 이단으로 말할 수 없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없게 된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절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전국의 크리스천이 함께 기도하자”고 독려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한국의 대표적 공공장소인 서울광장에서 다시는 동성애 축제를 허락하지 않게 해 달라’는 등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했다.

‘735일 북한 억류’ 케네스 배

“광명성 3호 발사 날 잊을 수 없어”

“많은 날이 기억나지만 하나를 꼽으려면 아마 2012년 12월 12일로 기억됩니다. 북한이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한 날이예요.”

북한에서 약 2년간 억류됐다가 2014년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는 1일 서울 용산구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35일의 억류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배 씨는 “당시만 해도 곧 돌아갈 거란 전제하에 평양으로 이송됐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협조한다면 집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미사일 발사로 기대가 깨지고 말았다”며 “그들이 미사일 발사를 경축하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며 집에 가기 어려울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실망 속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너와 함께 할 일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다”며 “가장 어려웠던 날이 소망을 갖게 된 날이었던 것 같다”고 기억했다.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1985년 미국에 이민을 한 배 씨는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배 씨가 735일의 북한에서의 수감 생활을 기록한 비망록 ‘잊지 않았다’(두란노) 출

간 기념으로 마련됐다.

2012년 11월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된 배 씨는 2013년 4월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북미 협상을 통해 2014년 11월 8일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갔다.

배 씨는 “억류 전에 17번 북한을 왕래하면서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지만, 2년 동안 억류되면서 그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살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면서 “그들의 사상과 체제가 공고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 두개의 이념으로 나라를 지탱하고 있다”며 “그곳에 가서 보니 아주 어릴 때부터 굳어진 그들의 생각이 정의관(正義觀)이 뒤틀리는 걸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됐다”고 했다.

북한의 고립된 현실에 대한 예외소드도 소개했다.

“어느 날 유엔 사무총장이 남한 사람을 반기문이라고 했더니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한 남조선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는냐고 반문했어요.”

하지만 배 씨는 북한에 대한 희망을 저버릴 수 없다고 했다. “2년 동안 배운 게 있다면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어려움을 갖고

우르니 음부의 대문이 견대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하면 공격과 방어가 바뀐다. 교회가 공격하고 지옥은 방어를 한다. 교회가 지옥의 권세를 쳐부수려고 공격해 들어간다. 사탄은 지옥문을 굳게 닫고 죽음힘을 다해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겨내지 못한다.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된다. 지옥의 성벽이 무너지게 된다. 그 안에 갇혀 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사탄의 치하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지옥의 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확장시켜 나갈 수가 없다.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몸부림치다 말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하면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

jinhlee1004@yahoo.com

선교의 창 (56)

선교적 측면에서 본 디아스포라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세계선교를 향한 기독교의 전략은 어떠한가? 선한 파괴력이 있는가? 타종교와 비교해볼 때 세상에 주는 신선한 충격이나 속도감은 그저 그럴 뿐이다. 아니 부끄럽다. 더구나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때 우리의 자괴감은 클 수밖에 없다. 뭔가 새로운 사역적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세상을 복음으로 뒤엎을 수 없다. 대안은 무엇인가? 초대교회와 같이 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디아스포라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일으키는 작업이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종합적이며 전 지구적이다. 이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각 나라와 민족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저들은 역사의 격변과 문명의 발달로 땅 끝에서 땅 끝으로 가고 또한 우리 곁으로 와 있다. 뿐만 아니라 인종 초차림 역경을 이기며 타문화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성경과 역사를 볼 때 저들에게는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우리 교회는 통합적 선교 차원에서 저들을 보아야 한다. 그것은 디아스포라를 향한 전도와 교회개척(Church Planting) 선교는 물론이고 세계선교로 동원(Mission Planting) 하는 일이다.

와 바울뿐만 아니라 누가, 마가 요한,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아볼로 등 모두 디아스포라들이었다. 18세기 초 가장 선교를 열심히 했던 모라비안들은 진젠도르프가 제공한 영지 해문후트에 모여들었던 나그네들이었다. 20세기 이후 세계선교의 주역이 된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세운 나라였다. 한민족 역시 식민지 통치와 전쟁 그리고 경제적

인 한반도에도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들, 유학생, 결혼 이민자들이 늘어서 전과는 달리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다. 디아스포라 선교의 쟁점(Issue) 2010년 3차 로잔대회는 디아스포라 선교가 급부상하였다. 참고로 1, 2차 로잔대회는 도날드 맥가브란과 알파 윈터 박사에 의해 미전도 종족선교가 강조되었다. 하지만

있으면서도 현지 나라에 동화되어 있다. 또한 현지 나라와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두루 섭렵하고 있기에 교량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저들에게는 고급 인력이 많이 있다. 현지인과의 친밀한 관계도 형성되어 있다. 디아스포라들은 외국인을 힘들게 하는 비자와 재정적 후원도 필요하지 않다. 무엇보다 저들은 본국의 동족들보다 복음에 대해 더 열려있다. 그리고 소수자로서 겪은

디아스포라는 온갖 역경을 딛고 나온 자들이다. 디아스포라는 내국인에 비해 복음에 수용적이다. 21세기 선교는 저들을 어떻게 동원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어려움 등의 이유로 중국, 러시아, 일본, 남미 등에 흩어지게 되었다.

2015년, 세계의 디아스포라 현황

UN보고서에 현재 세계 70억 인구 중에 약 2억5천만 명이 자국의 난 곳을 떠나 나그네로 살고 있다. 41개 국가에서 인구의 20% 이상이 이주자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호주 등은 그야말로 이민자들이 연합되어 이른 대표적 나라이다. 특히 현대는 교통수단과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구 유동이 증가하고 있다. 확실히 우리는 이주가 세계적인 현상이 된 신유목민 시대(New Nomad Era) 속에 살고 있다.

성경과 역사 속의 디아스포라

성경에서 보면 많은 인물들이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다. 야곱은 맛단아랍으로 갔다.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다. 그 후 야곱의 권속 70인이 애굽으로 옮겨서 바로의 압제 하에 살다가 출애굽 하였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함락된 후 사마리아 사람들이 앗수르로 강제 이주되어갔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을 때 다니엘,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다 이방으로 흩어진 자들이었다.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모르드개, 에스더가 다 디아스포라들이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도 유아기에 그 가족을 따라 애굽으로 피난한 적이 있다. 초대 세계선교의 중심이었던 안디옥교회는 주 멤버가 이민자들이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의 주역인 바나바

구체적으로 전 세계에는 약 5,000만 명의 화교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 인도계도 디아스포라가 약3천만 명이나 된다. 필리핀계 디아스포라가 7백만이다. 일본계 디아스포라가 3백만 정도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은 2/3에 해당하는 1,600만 명이 디아스포라이다. 이 민족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후 2000년 가까이 팔레스틴을 떠나 나라 없이 유랑하며 살았다. 우리 한민족은 어떠한가? 일제의 침탈과 6.25전쟁 등을 기점으로 많은 이들이 한반도를 떠나 왔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5년도 기준 대략 7백50만 정도이다. 아울러 지금 한국거주 외국인인 174만 명이 된다. 순수 단일민족 단일 문화

3차 대회에서는 사디리 티라(Sadiri Joy Tira, 필리핀)가 발제자로 나서 현대선교의 큰 변화 중 하나로 "전통적인 선교에서 디아스포라 선교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디아스포라 선교가 강조되는 이유는 쓰나미, 홍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나 생태계 파괴와 같은 인간이 만든 재해, 경제적 혹은 교육적 필요와 기회 때문에 국제간의 이동이 더욱 잦아졌기 때문이다.

이어서 에녹 완(Enoch Wan, 홍콩)은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사역을 강조하며 3단계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mission TO diaspora 2)mission THROUGH diaspora 그리고 3)mission BY/BEYOND diaspora이다. 첫 단계는 디아스포라 그룹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디아스포라 그룹을 통하여 혹은 그들에 의해서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셋째 단계는 디아스포라 그룹을 넘어서 세계 모든 열방들에게 선교가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디아스포라 강점

디아스포라는 잠재 역량에서 보면 가장 큰 선교자원이다. 저들은 직업 선교, 자비량 선교, 비즈니스 선교와 문화 선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들은 타향살이에서 많은 고난을 이기고 살아남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생적 생명력이 있으며 성취욕도 높다. 자기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고난의 체험들이 복음의 효과적 접근과 관통성에 유리한 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맺음 말

인간은 누구나 친숙하고 편안한 영역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방도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흠오시는 것이다. 마치 농부가 분명한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씨를 뿌리듯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의도적 섭리이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에 예언된 세계선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행8:1-4), 그리고 헬라인(이방인)에게(행11:19-26) 디아스포라로 흩어짐으로써 구현되었다. 결국 디아스포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곳곳에 전하려는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 성취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었다.

역사적으로 바라본 디아스포라의 모습은 다양하나 본질은 복음 전도에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디아스포라 선교에 눈을 떠야 한다. 그것은 한 마디로 To 디아스포라, With 디아스포라, Through 디아스포라이다. 이는 찾아가는 땅 끝에서 찾아오는 땅 끝으로 선교이다. 단연컨대 만일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으로 거듭나고 선교에 동원된다면 남은 미완성 과업은 얼마나 신속히 효과적으로 완수될 수 있겠는가?

jrson007@hanmail.net

선교 펴기

헝가리 부다페스트

Dear, 기도와 사랑, 또는 물질로 선교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월을 맞아, 저희 이곳 선교소식과 감사, 기도제목을 보고(report)하고 나눕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세례요한)보다 크니라"(마11:11).

1. 어린이 선교인, "토요학교"와 "주일학교"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많습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주일(헝가리 어린이날)에는 예배 후 두 팀을 나누어 물풍선 나르기 등을 했습니다. -토요학교 영어반이 6월 11일 동물원 견학을 가고, 18일에 종업식을 하며 상장을 수여합니다. 어린이 전임사역자인 '노베르트'가 성경반을 열어, 토요학교는 영어성경반과 함께 계속 진행됩니다. '피테르' 전도사와, 원선생님, 크리스티나, 에스테르, 지니 선생이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쭉날쭉 하는 아이도 있지만, 토요학교는 선발한 학생 12명, 주일학교는 서른 명 정도입니다.

-전에는 아이들을 무조건 다 교회에 데려와서 육설, 싸움, 도둑질, 성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쳤는데, 요즘은 구별하여 데려오고, 데려올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가서 사역합니다.

2. "쇼 & 빌라고샤(소금과빛)교회" 예배에 말씀관련 영상을 편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일예배 전반부에는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므로 찬양하고, 말씀관련 영상을 함께 봅니다. 특히 노숙자 성도들에게 영상은 집중하게 하고, 말씀이해에 많은 도움과 기쁨이 됩니다.

-그나마 집이 있는 집시 가정들은 서신교사가 여러 번 뵈므로 데려오고 데려다 주지만, 홀리스 성도들은 여러 곳(시설, 빈집, 또는 기차나 역)에서 교회로 오니 참 감동이 됩니다(헝가리에는, 밤에 시골로 이동하는 기차에서 자는 홀리스가 8,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노숙자증을 가진 자들에게, 무료로 샤워와 세탁, 드라이, 개인보관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일예배 후 급식과 함께, 매달 한번씩 선물꾸러미를 나눠주고 있습니다(양말, 모자 등 의류, 통조림, 소세지, 식용유, 설탕, 소금, 밀가루 등 식료품, 그리고 물과 티슈 등).

-한 달에 한 주일은 임례 전도사가 설교를 맡아 섬기고, 일디코 사모는 기타반주로 섬깁니다.

3. "거리의 교회"는 예배와, 급식, 종교, 이발사역을 합니다. 허타르 역 다리밑(월), 남부역(화)

-급식 때(일요일에 삼 일) 샌드위치를 함께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95일간 성경통독을 끝냈는데, 이들과 함께 '성경통독' 모임을 갖기 위해 기도 중입니다.

-산도르가 회복하여 다시 급식사역의 주방장으로, 또 여니도 함께 돕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4. "집시 슬럼가 사역"은 가가호호 심방하며 말씀과 기도, 전도 합니다. '살라쉬 동네'(수), '회쉬 동네'(목)

-매주 금요일마다 두 가정씩 저희 집에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대접하며, 가정교회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자매 브리기와 멜린다 가족인데, 한 남편에 두 아내가 자녀를 넷씩 낳아, 여덟 아이가 있습니다. 집시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와 짝을 맺으면 그 여자의 여동생까지 둘 다 아내로 삼습니다. 자매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이 나쁜 관습을, 어린이 사역을 하며 계몽하고 있습니다.

-집시 어린이들을 장학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세워가고 있습니다(현재, 마르틴, 헤니, 비키, 아노쉬, 키티, 멜린다, 브리기, 도로쉬, 비비안, 피테르, 서비, 키티b, 멜린다b, 요지, 키쉬 레티, 마리오, 마르톤, 칼빈, 르카르도르, 비앙카를 조금씩 돕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God bless you!
헝가리 파송선교사, 김흥근&서명희 드림.
mylovehungary@hanmail.ne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I Will Pass Over You!"



나이스칸들이여!
세계의 관문
샌프란시스코에서
성령의 불을 지피자!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

총재 피종진 목사



뉴욕 맨해튼 성회

Nyskc Family Conference San Francisco 2016

California State University East Bay June 27 - 30

“예배가 행복되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산다!”



Nyskc World H.Q.

총재: 피종진 목사(서울)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뉴욕)
상임회장: 디모데박 목사(오사카)
실무회장: 이병완 목사(메릴랜드)

Nyskc World Mission

www.nyskc.org / e-mail: nwm@gmail.com

"2017 Nyskc Family Conference는 Florida에서"



Nyskc Learned Society
회복의 신학 학회

학회장: 윤사무엘 목사(GTS 학장)
학회실장: 최기성 목사(뉴욕)

Nyskc Family Conference '16 SF 조직위원회

대회장: 권영국 목사(뉴욕) 고문: 오관진 목사(캘리포니아)
문영준 목사(뉴욕) 준비위원장: 강순구 목사(캘리포니아)
자문위원: 손원배 목사(캘리포니아) 예배분과장: 박춘배 목사(캘리포니아)
위성교 목사(캘리포니아) 총무: 김태훈 목사(캘리포니아)

행사 안내 및 등록문의 U.S.A.

대상: Family & 목회자 부부
등록마감일: June 5, 2016
참가비: (교통비 별도)
일반인 \$300, 목회자 1인 \$150
T. 845.355.8829, 510.449.4887
646.269.0045, 917.698.9965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11)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를 위한 심리학적 기초 (35) - 커리큘럼의 기초들 (Psychological Foundations for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트리니티칼리지 교수)

우리는 지금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기초들 중에서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성경적 기초들, 신학적 기초들, 철학적 기초들, 역사적 기초, 사회학적 기초, 그리고 심리학적 기초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부터는 그 마지막 기초인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의 기초들(Curricular Foundations for Korean American Church Education)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Curriculum)”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많은 사역자들은 교회학교에서 사용하는 “책으로 된 교재들”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중 많은 분들이 교회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교회의 사역자를 만나면, 한번쯤은 “전도사님(목사님) 교회는 어떤 커

리큘럼을 사용합니까?”라는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질문했던 것은 그 교회가 소그룹 모임 혹은 성경공부 시간에 어떠한 좋은 책으로 된 교재를 사용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며, 이런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는 사역자들 역시, “우리 교회는 직접 만든 것을 씁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교단교과를 씁니다, 혹은 미국의 우수한 000 교재를 씁니다”라고 이야기 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커리큘럼이 “책으로 된 교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교재가 커리큘럼과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좁은 의미에서 보면 교재를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으로 된 교재는 커리큘럼 자료(Curricular Material)라 불리는 커리큘럼을 실행하기 위해 마련된 가시적인 교육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날부터 우리가 교육적 기초로서 살펴보고자 하는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책으로 된 교회학교 교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다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커리큘럼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커리큘럼이라는 말은 사실 방대한 교육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을 지닌 말입니다. 사실 그 말의 유래는 “말이 달리는 코스”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currere”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마치 일종의 트랙과 같이, 처음과

끝이 있고 중간 중간 달성해야 하는 과업들이 장착되어 있는 미리 준비된 하나의 코스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코스를 계획하는데 필요한 “무엇을 가르치는가” 등과 같은 큰 그림을 그리는 질문에서부터 그 코스들의 면면을 이루는 “한 시기에 행해지는 한 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행위”라는 구체적인 상황에 이르러가까이를 망라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혹자들은, 즉소위 진보주의 교육자들(Progressive Educators)라고 불리는 교육자들은, 커리큘럼을 학생들의 교육 경험일체라고까지 더 확대하여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커리큘럼은 어느 정도의 일정한 계획과 틀은 있지만 미리 다 완성될 수는 없으며, 교육의 전 과정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게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며, 어떤 계획이 있는, 또한 무엇인가 의도한 바가 분명하며, 교육적이며, 그리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커리큘럼이란 따라서,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왜 교육할 것인지,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교육할 것인지, 누구를 누가 교육할 것인지, 어디서 교육할 것인지, 언제 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육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교육목적을 가지고 교육할 것인지를 대대론고 대답하여 계획하고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얻어지는 일련의 교육 계획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위의 모든 질문들에 대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계획하고 결정할 것인지입니다. 그리고 이

커리큘럼은 일회적 아닌 일련의 과정...계획, 의도, 교육, 결과... 성경중심적 교육철학 가진 사람이 교회교육 계획하고 결정해야

를 위하여서는 세심하고 자세하고 설득력 있는 노력들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 노력을 행하는 당사자들, 즉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만드는 주체들이 누구인가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계획 및 결정의 주체들이 가진 교육적 철학이 무엇이냐에 따라, 커리큘럼은 바로 그 교육 철학기반을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가시화시키는 “매개”이므로, 그 커리큘럼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중심적 교육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교육의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과 행동주의적 교육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 하는 것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자 중심적 교육 철학을 가진 우리 교회의 담임목사님이 주축이 되어서 전체적인 교회적 시각에서 우리 교회 유스그룹의 커리큘럼을 계획하는 것과 피교육자 중심적 교육철학을 가진 유스그룹 담당사역자가 유스 그룹 멤버들의 개별상황과 부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커리큘럼을 계획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크게는 전통주의적 교육철학을 가진 전체 한인교회형 의회가 주축이 되어 이민 2세 혹은 1.5세대들이 우리 다음세대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계획하는 것과, 진보주의적 교육철학을 가진 미국 교회 및 교단들이 자신들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커리큘럼들과 다를 것입니다.

(16면으로 계속)

되는 방대한 개념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책으로 된 교재가 아니고,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그 커리큘럼이라는 것의 정체가 쉽게 와 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기초로 삼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의미를 알아야 하기에, 엘리엇 아이즈너(Elliott Eisner)라는 저명한 교육학자가 내린 교육계에 대한 정의로 통용되는 커리큘럼에 대한 정의를 살펴봄으로써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즈너는 그의 책 “교육적 상상”(Eisner, E.W.(2002). The educational imagination: O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school program.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 Prentice Hall)에서 커리큘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학교, 혹은 과목, 혹은 한 수업의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일련의 계획된 이벤트들로서, 이는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학생들에게 교육적 결과들이 생기도록 의도된 것들이다(The curriculum of a [church]school, or a course, or a classroom can be conceived of as a series of planned events that are intended to have educational consequences for one or more students) (Eisner, 31). “

이 정의를 분석해보면, 커리큘럼이란

고 쳐들어오고 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안이 닫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사울이 쳐들어온 줄 알고 모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적이 오는 것을 미리 알아 깨어있는 뿐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은 이렇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앞날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수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올을 깨닫고(삼상26:3-5)

성도는 앞날을 대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울과 다윗의 아주 극명한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막강한 군사력과 조직과 정보망을 가지고도 다윗을 좀처럼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위험한 것도 모르고 다윗에게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죽을 목숨을 구해주었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해놓고 또 다윗을 죽이려

목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삼상26:6-12)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켜주시는 축복과 채워주시는 축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늘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형통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존귀히 여김을 받고 명예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축복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세

금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삼상26:13-18)

삼상 26장은 24장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심 황무지 사람들의 밀고로 사울왕이 3천명의 특수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 내용입니다. 두 사건이 다른 것은 첫 번째 사건에는 사울이 무서워서 동굴 깊숙이 숨어있다가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 사건에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본문은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온 다윗이 사울왕을 지키지 못했던 아브넬 장군을 책망하면서 다시 한번 사울왕에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 부으신 왕을 끝까지 존경했습니다.

토 내 주 왕은 이제 중의 말을 들으소서(삼상26:19-21)

다윗의 간절한 호소는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다윗은 심판동이나나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끝까지 “내 주 왕이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사울왕의 형편을 끝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까이 죽음을 택하겠다 (19절)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왕보다도 주변에 고자질하고 이간질하는 사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네 지혜를 칭찬할찌며 또 네게 복이 있을찌어다(삼상25:32-44)

한 여인의 지혜가 온 집안과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구하고 그 여인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 다윗의 아내 곧 왕비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아버지가일을 통해서 지혜를 배웁니다. 또 한가지 주목할 것은 성도는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남편 나발이 낙담해 죽자 다윗은 아버지가일을 아내로 삼으려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일을 얼굴을 땅에 대

고 “나는 주의 여종이요,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기 중”이라고 겸손하게 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영원히 지옥 갈 저희들의 목숨을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더욱더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화 사울이 일어나 심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삼상26:1-2)

삼상 26장은 심 사람들의 밀고로 사울이 또 다시 3천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과는 다윗에게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들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

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만이 있는 축복입니다. 본문의 교훈은 성도는 사람이 이간질하고 고자질하는 사람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심 사람들이 사울에게 또 고자질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심 사람들이 또 다시 다윗에게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다윗을 고발했습니다. 심 사람들은 다윗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인간의 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삽니다.

수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올을 깨닫고(삼상26:3-5)

성도는 앞날을 대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울과 다윗의 아주 극명한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막강한 군사력과 조직과 정보망을 가지고도 다윗을 좀처럼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위험한 것도 모르고 다윗에게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죽을 목숨을 구해주었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해놓고 또 다윗을 죽이려

고 쳐들어오고 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안이 닫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사울이 쳐들어온 줄 알고 모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적이 오는 것을 미리 알아 깨어있는 뿐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은 이렇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앞날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목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삼상26:6-12)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켜주시는 축복과 채워주시는 축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늘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형통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존귀히 여김을 받고 명예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축복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세

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풍족한 왕이었지만 함께 한 3천명의 군사가 모두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생명이 위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상에 아무런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과 물질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모든 군사를 다 잠들게 하시고 다윗과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삼상26:13-18)

삼상 26장은 24장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심 황무지 사람들의 밀고로 사울왕이 3천명의 특수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 내용입니다. 두 사건이 다른 것은 첫 번째 사건에는 사울이 무서워서 동굴 깊숙이 숨어있다가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 사건에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본문은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온 다윗이 사울왕을 지키지 못했던 아브넬 장군을 책망하면서 다시 한번 사울왕에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 부으신 왕을 끝까지 존경했습니다.

람들이 문제이지 사울왕이 문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산에서 메추리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벼룩을 잡으러 왔다”고 자신을 산에 있는 메추리기와 벼룩으로 비교했습니다. 다윗은 사실 지금 힘 있는 군대를 거느리는 사람인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고 운우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심령인지요!

토 내 주 왕은 이제 중의 말을 들으소서(삼상26:19-21)

다윗의 간절한 호소는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다윗은 심판동이나나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끝까지 “내 주 왕이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사울왕의 형편을 끝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까이 죽음을 택하겠다 (19절)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왕보다도 주변에 고자질하고 이간질하는 사

람들이 문제이지 사울왕이 문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산에서 메추리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벼룩을 잡으러 왔다”고 자신을 산에 있는 메추리기와 벼룩으로 비교했습니다. 다윗은 사실 지금 힘 있는 군대를 거느리는 사람인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고 운우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심령인지요!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www.kuml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p>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Tel. 39-06-827-3585, 39-348-339-1726</p>	<p>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Tel. (82)2-2646-3181~3, (82)2-2646-3184</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www.seongsil.or.kr Tel. (02)2-990-9988, Fax. 3927-1008</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p>	<p>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Tel. (02)732-2341~3, 팩스: (02)389-2235</p>	<p>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Tel. (82)2-842-1968, 팩스: (011)82-2-842-1968</p>	<p>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Tel. (02)418-0481, Fax: (02)422-0751</p>	<p>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Tel. (82)2-786-6579, 팩스: (82)2-338-5671</p>	<p>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서울 용인구 이준호 302-67 (140-031)</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Tel. (82)2-889-4813, 331-284-7204</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Tel. (02)842-6881, Fax. (02)842-688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Tel. (82)32-527-1009, 팩스: (82)32-527-1009</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Tel. (82)2-793-7740</p>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 8차 KWMC 개막(6월 6-10일), KWMF(3-6일) 아주사퍼시픽 대학



제 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개막예배



첫째 날 저녁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로렌 커닝햄 목사



최찬영선교사가 개회예배 축도를 하고 있다



성찬식을 집례하는 박희민 목사



선교사 찬양팀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



본 대회를 이끌어 오고 있는 사무총장 고석희 목사



제 15차 선교사대회에서 한기홍목사가 축사하고 있다.



첫날 저녁 선교사대회에서 선교보고를 하는 김종진선교사



박희민목사 집례로 성찬식이 진행되고 있다



25년 근속 현역선교사들이 찬하패를 받고 즐거워 하는 모습



자신의 간증과 함께 선교보고를 들려주는 정훈채선교사



뇌성마비 장애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박수영선교사

[특별취재팀] 본 화보는 제 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와 제 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개막식과 첫날 집회를 취재한 것입니다.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5면에서 계속)

각 주체들은 각자가 가진 원칙에 따라 각자가 주목해야 할 상황과 사안에 따라 커리큘럼 계획에 있어서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

입니다.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그 주체들이, 우리의 경우, 사역자들이 결정해야 할 것들은 앞서 살핀 바대로 무엇을, 왜, 누가 누구에

게 어디서 어떻게 언제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며,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성경적 원칙과 성경중심적 교육철학을 가지고 결정하여 기독교 교육의 큰 밑그림을 그리고, 또한 각각의 연령대에 대한 발달적 상황과 및 한인 2세, 1.5 세로서의 사회적/문화적/심리적 상황들을 고려하여 세

부적인 채색을 하여 그 교육 실행을 위한 준비를 마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역자들이 마련해야 하는 커리큘럼입니다.

실상, 정부와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뛰어 들어 힘 쓴 다양한 결과물들을 갖고 있는 학교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일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거니와, 그러한 결과물들이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못한 교회교육자들, 특히 우리와 같은 한인교회 교육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커리큘럼 계획 및 결정은 참으로 더욱 어렵고 고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제시한 커리큘럼 계획

및 결정 관련 질문들을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inaichung@yahoo.com



선착순 30명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한인동문회 주최 여름 신학강좌

- 1 **일시:** 6월20일(월) 오전10시-오후5시: 요한복음(강사: 박찬석 박사)
장소: 아주사퍼시픽대학교 LA센터(3580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 2 **일시:** 7월18일(월) 오후4시-9시: 잠언(강사: 존 하들리 박사)
장소: 아주사퍼시픽대학교(701 E Foothill Blvd, Azusa, CA 91702)
- 3 **일시:** 8월29일(월) 오전10시-오후5시: 로마서(강사: 김세운 박사)
장소: 아주사퍼시픽대학교 LA센터(3580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박찬석 박사



존 하들리 박사



김세운 박사

강사양력: 박찬석 박사(우스터대학 (College of Wooster) 종교학과 교수)
존 하들리 박사(아주사퍼시픽 대학교 구약학 교수)
김세운 박사(플러신학교 교수)

문의: 최장식 목사 (818)331-5478, 김사라 전도사 (310)988-0099

